

2023. 정책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형평운동의 역사와 형평정신의 현재화 방안 연구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신진균

2023. 정책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형평운동의 역사와 형평정신의 현재화 방안 연구



제 출 문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 귀하

신현국, 황진선, 서정인, 박미경, 백승흥, 강묘영, 이규섭, 전종현,
최지원, 신서경, 최호연

이 보고서를

「**형평운동의 역사와 형평정신의 현재화 방안 연구**」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1.

- 연구기관 : 형평운동기념사업회
- 책임연구원 : 신진균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차 례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형평운동이란?	1
2. 연구 목적	1
3. 연구의 범위	1
II. 형평운동, 그 100년의 역사	
1. 형평운동의 배경	3
2. 형평운동의 전개	7
3. 형평사의 조직과 확대	11
4. 내부의 파벌 갈등	13
5. 하위단체의 출현	16
6. 형평사의 활동	18
7. 고려혁명당 사건	23
8. 형평운동에 대한 반발 : 초기 반(反)형평사건(1923-1925)	24
9. 형평운동의 결과 및 의의	31
III. 형평운동 100년사와 형평정신의 현재화 방안 인식 조사	
1. 조사 개요	39
2. 조사 결과	39
3. 주목할 만한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58
IV. 형평정신의 현재화 방안	
1. 형평운동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위한 제언	60
2. 형평투어 코스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언	61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92
• 참고문헌	96

형평운동의 역사와 형평정신의 현재화 방안 연구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신 진 균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형평운동이란?

- 1923년 4월 25일 형평사 창립
- 1935년까지 12년간 일제강점기 가장 오랫동안 활발하게 지속된 사회운동
- 단순히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 차별 철폐 운동이 아닌 사회운동 단체, 독립운동 단체와의 연대 · 협력을 통해 좀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한 사회개혁운동
- 회원들의 협동과 상호친목을 도모한 공동체 운동이자 민족 해방 운동이었음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진주에서 시작된 세계적 인권운동인 형평운동에 대한 재조명
- 형평운동 100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 경남도민의 형평운동 역사와 형평정신의 현재화 방안에 관한 인식조사
- 경남권 주민들의 형평운동과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인식 향상
- 진주/경남정신에서 형평운동의 위상 정립과 형평운동 기념 사업의 방향 모색
- 형평운동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자료수집, 관리·활용 방안
- 형평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형평운동의 도시브랜드화 방안 및 정책 제시
- 형평운동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 형평운동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위한 제언
- 형평투어 코스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언
- 형평운동 사적지 정비 및 관리 방안 제시
- 형평역사공원 및 형평기념관 건립 방안 제시
- 형평운동의 전국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시

3.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주로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의 역사를 재탐색하고, 필요에 따라 조선후기와 해방이후 현

재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삼음.

- 형평운동의 발상지인 진주를 중심으로, 정읍, 서울, 일본 등 형평운동과 관련이 있는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함.
- 내용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형평운동의 역사와 관련 인물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현재 진주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남아있는 형평운동 관련 유적지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함.
- 우선, 형평운동 100년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위해 형평운동을 주제로 한 연구서, 연구논문, 학위논문, 문학작품 등을 검토하고자 함.
- 형평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현재화하기 위해서 경남도민들은 형평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형평운동의 대중화, 전국화, 세계화 방안을 모색해보고, 형평의 가치와 정신을 현재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을 시도하고자 함.
- 형평운동의 주체가 최하층민 백정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자료가 많지 않은 특성이 있고, 주로 당시 언론에 보도한 신문기사가 대부분임.
- 따라서 신문 기사를 비롯하여 잡지, 구술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최근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사료집이 발간되었음.
- 구술자료 수집을 위해 형평사원의 후손을 찾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함.
- 진주를 비롯한 전국의 형평운동 관련 유적지 보존 실태 조사하고, 유적지 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형평운동의 대중화·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평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아카이빙(archiving)하는 작업이 필요함.
- 많은 시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탐방 코스 및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제시할 것임.
- 진주정신=경남정신의 바탕이 되는 형평운동을 진주 역사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II. 형평운동, 그 100년의 역사

1. 형평운동의 배경

○ 형평사 주지에서 본 백정

공평(公平)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량(本良)이다. …… 이 같은 비극에 대하여 사회의 태도는 어떠했던가? 소위 지식 계급에서 압박과 멸시만 하였도다. 이 사회에서 우리 백정의 연혁을 아는가, 모르는가? 결코 천대를 받을 우리가 아니다. 직업의 구별이 있다하나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 우리만이 아닐 것이다. …

「형평사 주지」 중 일부

- ‘금수’는 백정의 역사가 고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표현
- ‘생명’은 살생을 통해 얻은 고기는 제례와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 ‘빼앗는다’는 재주를 인정받지 못하면 곧 그것이 저주가 되어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됨
- ‘자’는 백정을 인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짐승 잡는 도구로 인식

가. 역사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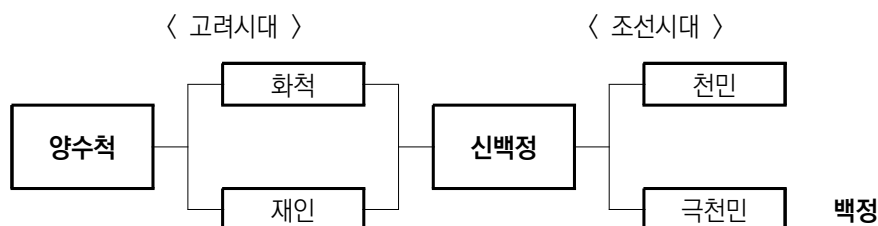
■ 백정(白丁)의 의미

대개 백정을 혹은 ‘화척’이라하고 혹은 재인, 혹은 달단(韃靼)이라 칭하여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니, 국가에서 그들을 제민(齊民)하는 데 고르지 못하여 민망합니다.

《세조실록》 2년, 3월 28일

- 백정은 신역(身役), 군역(軍役)과 부역이 부과되지 않은 남자(丁)
- 고려시대의 백정은 납세나 병역의 의무를 갖지 않았던 특수한 ‘일반인’ 집단
- 조선시대에는 천민 집단인 화척(禾尺)과 재인(才人)의 명칭과 결합
- 무리를 지어 살면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인 목축·수렵에 종사
- 일부는 가무를 연주하면서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는 유랑생활 계속
- 1419년 재인·화척을 한곳에 두고 평민과 서로 혼인하면서 살도록 하는 명령
- 1423년 10월, 백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평민과 혼인하고 섞여 살도록 명령
- 백정들은 특수거주지를 형성하였으며 도살·유기제조 등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이어나감
- 백정이란 호칭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굳어짐

〈천민 집단의 호칭 변화〉



■ 직업의 특성에 따라 분화

- 고리 제품을 생산하는 백정: 유기장, 고리백정
- 가죽 제품을 생산하는 백정: 피장(皮匠), 피공(皮工), 갓바치, 두벌 백정, 혜장(鞋匠)
- 주로 도살이나 정육의 일에 종사하는 백정: 칼잡이, 재설꾼, 재인, 도한(屠漢)
-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상여를 매는 일을 백정이 담당
-왕이나 왕비 같은 중요한 인물의 관을 나르는 여사군(輦士軍)으로 활동하기도 함
- 사형을 집행하는 회자수(劊子手, 일명 망나니)로 뽑히기도 함
- 직업군대인 갑사(甲士)에 등용

■ 사회적 차별

- 백정은 무적자(無籍者)로서 일체의 공권에서 제외
- 천민 중 가장 낮은 천민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극도의 예의와 복종심을 보여야 함
- 사회적으로도 관혼상제나 의식주 등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비인간적인 차별을 받음
- 관습을 어기면 마을 내 규율 유지조직인 농청(農廳)을 통해 집단적 사형(私刑)이 가해짐
- 일본의 에타(穢多), 인도의 불가촉민(不可觸民, Untouchable), 달리트(Dalit)와 유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백정의 차별상〉

출생	호적에 올 수 없음 석(石), 돌(鬲), 피(皮)와 같은 좋지 않은 뜻을 글자 사용
거주	가옥에 채색을 할 수 없고 기와도 올릴 수 없음 성 밑, 다리 아래에 거주(피촌(皮村), 백정촌(白丁村), 피촌말, 제향촌 등)
교육	과거, 서당, 교육기관 입교 거부 및 차별, 취직 안됨
혼인	일반인들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어 자기들끼리 결혼함 백정 신랑은 말 대신 소를 타고, 신부는 가마 대신 널빤지를 타고 결혼함 결혼 뒤에도 남자는 상투를 틀 수 없고 여자는 비녀를 꽂지 못하고 둘레 머리를 해야 함
장례	상여·상복·지팡이를 사용할 수 없음 장례시 곡을 할 때는 소 울음소리를 냄 묘지에 잔디를 입힐 수 없고 일반인들의 묘지와 분리
일상 생활	공공장소에서 비백정들과 함께 집회를 가질 수 없음 길을 갈 때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뒤따라 걸어야 함 어른, 아이 구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존댓말을 해야 함 갓을 쓸 수 없고 평량자(平涼子)를 써야 함 비단옷이나 가죽신을 신을 수 없고 짚신이나 헝겊신을 신어야 함 양인의 집에 가서도 뜰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이야기를 해야 함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함

나. 경제적 배경

- 19세기 말 20세 초 경제 상황의 변화에서 백정들은 전통 사회에서 누렸던 경제적 기득권 상실
- 정부는 도살과 정육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통제권 강화
 - 1896년 1월에 최초로 도살과 정육에 관한 ‘포사규칙(庖肆規則)’을 법령으로 제정
 - 도살장의 허가권을 가진 관청은 고기 판매 통제권이 대폭 강화
 - 백정들이 대대로 누려온 도살과 고기 판매의 독점권 상실
 - 백정에 대한 관습적·자의적 수탈에 더해 법적 수탈
 - 이러한 변화는 백정들의 분화를 촉진하여 적은 숫자이지만 자본을 축적하여 도축장 경영에 참여하는 부유한 백정과 단순히 도수(屠獸)노동에 종사하는 도부(屠夫)노동자도 나타남

*포사(庖肆)

무쫓간, 도살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판매하는 가게

*도부(屠夫)

도축장이나 수육판매조합 또는 수육판매점에 고용되어 도축(屠畜)하는 사람

- 도축장에서 고기를 가져와야 하는 정육점은 일제의 가격 결정과 공급 통제에 더욱 의존
 - 비백정들의 정육점이 늘어나면서 고기 판매는 백정들의 독점 업종이 될 수 없었음
- 전통 사회에서 당연히 백정들이 차지했던 소가죽(牛皮), 쇠기름(油脂), 소피(牛血) 같은 부속물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게 됨
 - 소가죽의 상품 가치가 커지면서 이권을 둘러싼 경쟁은 치열해지고 일본인들의 진출 활발
 - 집안에서 소규모로 상품을 만들던 백정 가죽노동자들은 대부분 피혁 공장의 노동자로 전락
 - 가죽을 말리는 작업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서 근대적인 건피장(乾皮場)에서 이루어짐
- 고리 제품의 생산에서도 마찬가지였음
- 도부업, 수육 판매업을 생활 수단으로 하던 백정들에게 도축장의 관영화와 강제적인 도축장의 이전은 생활 기반을 흔들어 놓는 중대한 문제
- 부유한 백정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차별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형평사 창립에 적극 참여

다. 사회적 배경

- 1894년 동학농민혁명때 폐정개혁안에서 백정의 신분 해방을 처음으로 제시
 - 노비 문서를 소각하고 천민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개선할 것
 - 백정의 평량자를 없앨 것
- 백정의 사회적 활동
 - 1898년 10월 26일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 박성춘이 연사로 나섬
 - 1900년 경남 진주 주변 16개 군의 백정들이 관찰사를 찾아가 일반인들과 똑같이 갓과 도포를 입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

- 경남 진주 사건 -

진주군을 비롯한 인근 16개 군의 백정들이 1900년 2월에 차별 관습을 없애 달라고 관찰사에게 탄원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관찰사는 소가죽으로 관의 띠를 하라고 하였다.

《황성신문》 1900년 2월 28일

- 경남 진주, 경북 예천, 황해도 해주처럼 백정들은 부당한 처리에 대해 상급 기관에 제소
 - 1901년 경북 예천에서는 군수가 백정들에게 옛날의 옷차림으로 다닐 것을 명령하였으나 백정 세 명이 거역하였고 군수가 그들을 잡아들여 몇 개월 동안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기자 재설꾼 박성춘이 중앙의 내부에 이 사건을 제소함
 - 황해도 해주에서는 관리들이 백정들의 신분 해방을 대가로 5만 냥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 백정들이 서울의 농부(農部)에 제소
- 19세기 말 서울 곤당골 교회, 1909년 진주의 진주교회 동석예배 거부 사건
 - 곤당골 교회는 비백정 교인들이 떠나고 백정교회로 남게 됨
 - 진주에서는 비백정 교인들과 백정들이 함께 예배를 보게 됨
- 1910년 도수조합(屠獸組合) 결성 시도
 - 서울 도수조합의 최용규(崔鎔圭)가 경상남도 지부를 만들 목적으로 진주에 옴
 - 의령 사람 장지필은 이에 호응하여 경남 각 군의 도살업자들 수십 명을 진주에 소집
- 1922년 대구에서의 ‘백정 야유회 사건’
 - 백정 출신들의 야유회에 기생들이 함께하였다가 비백정인들의 비판 제기
 - 대구 기생조합(권번)에서는 함께 했던 기생들을 기적(妓籍)에서 제적
- 1920년대 초에도 백정 자녀의 학교 입학이 쉽지 않았고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심게 받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
- 백정들의 사회적 활동의 확대와 조직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형평운동에 기여
 - 신분 철폐에 따라 백정들에 가해지던 차별이나 억압은 줄어들
 - 차별 관습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백정 출신들의 노력 공존
 - 형평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마련
- 일제의 억압과 3·1운동 이후 사회운동의 활성화
 - 3·1운동 이전 일제의 억압과 통제
 - 일본 자본의 침투로 토착 산업은 그들과의 경쟁
 - 사회적·정치적 활동은 일제의 철저한 전체주의적 통제
 - 총독부 기관지인 한국어 신문 매일신보, 일본어 신문 경성일보만 있어 언론과 공공 정보의 통제
 - 경제분야에서 일본인 이주민들은 일제의 지원 아래 더욱 많은 재산을 축적
 - 일제가 제정한 ‘학교법’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규제
 - 3·1운동 이후 사회운동
 - 수많은 사회 활동 단체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1920년 창간, 시대일보는 1924년 창간
- 민족 해방 운동의 활동 목적과 전략이 형평운동과 일맥상통하였으므로 그 단체들과 협력
 - *야학이나 강습소 같은 비공식 교육기관 설립, 민립대학설립운동
 - *교육과 계몽 활동은 일반인들의 사회 인식을 일깨우는데 기여
- 1920년대 초 사회 운동가들의 주요 관심사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등장
- 청년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 사회주의 사상 등 온건한 것으로부터 급진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구성
- 사회운동의 상황은 형평운동 발전의 사회적 조건 및 외부 환경으로 작용

■ 평등사상의 확산

- 동학은 전통적인 여러 사상에 기초하고 있지만 평등사상을 담고 있음
- 기독교 사상은 17세기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가치와 갈등
 - 19세기 말부터는 병원과 학교를 개설하여 병들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확장
 - 일부의 백정들은 교회를 통해 평등사상을 접하게 됨
 - 주로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 전통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 나감
- 사회운동가들의 평등사상 확산
 - 인가받지 않은 비정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 야학이나 강습소 같은 곳에서 근대적, 새 사상을 전파
 - 순회강연
- 형평운동의 주요 사상인 평등사상이 백정 공동체에 확산
- 역사적 경험들이 형평운동의 사회적 조건으로 작용

〈1920년도 초 백정 인구의 도별 분포〉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호	509	493	737	863	759	1,367	811	894	259	337	429	118	12
인구	2,431	2,418	3,296	3,724	3,034	6,121	3,384	4,221	1,015	1,456	2,184	394	34
비율	7.2	7.2	9.8	11.0	9.0	18.2	10.0	12.5	3.0	4.3	6.5	1.2	0.1

출처: 김종섭, 『형평운동연구』, 민영사, 1994; 고숙화, 『형평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 형평운동의 전개

가. 진주지역의 사회적·역사적 조건

- 진주는 예로부터 경남 서부지역 주변 여러 읍(邑)을 통속한 대읍으로 핵심적 기능 수행
- 임술농민항쟁(1862)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때 농민항쟁의 선구적 역할
- 동학농민혁명(1894) 때 경남 서부지역 동학의 총본산이 진주에 있어 많은 영향
- 경남의 도청소재지로 행정의 중심지 및 선진문물이 들어오는 길목의 역할

- 최초의 지역신문인 경남일보 창간(1909)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
- 3.1운동(1919) 때 만세 시위가 서부 경남으로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
- 진주에서 전국 소작농들 1,000여 명이 최초로 소작인대회(1922) 개최
- 진주지역의 사회 운동가들이 각종 사회 운동 단체에서 활동했던 경험

나. 형평사의 창립

- 1920년대 초까지 진주에는 약 350여 명으로 추정되는 백정 거주
 - 비백정인들과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집단 거주
 - 진주성 밖의 옥봉 마을, 나불천 기슭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 형평사 창립 논의는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조직 결성을 위한 활동은 1923년 봄에 시작됨
 - 사회운동가들과 백정 출신 지도자들은 백정 마을을 돌아다니며 단체의 필요성 설득
 - 비백정 출신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와 백정 출신 이학찬, 장지필이 함께 함
- 형평사는 공식적으로 1923년 4월 25일 경남 진주에서 창립
 - 4월 24일, 진주 청년회관에 70여 명의 사회운동가와 백정 출신들이 기성회를 가짐
 - 4월 25일, 80여 명의 참석자들이 진주 청년회관에서 창립총회 개최
 - 사회운동가 강상호가 임시 의장으로 행사 진행
 - 업무분담과 임원 선출을 통해 조직의 틀을 갖추
 - 형평사 주지(主旨)를 통해 단체의 목적을 분명히 함
 - 사칙(社則)에서 사원 자격을 모든 한국인으로 하여 다양한 인적 구성

형평사 주지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 본래의 양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여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사람이 되기를 기약함이 본사를 만든 취지이라.

지금 우리 조선의 백정은 어떤 지위와 어떤 압박에 처해 있는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도록 통곡에 피눈물을 금할 수 없는 바라. 이에 지위와 조건 문제 등을 제기할 여가도 없이 눈앞의 압박을 절규함이 우리의 실정이요. 이 문제를 선결함이 우리의 급무로 인정할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인지라.

비천하며 가난하며 열등하며 약하며 굽히는 자 누구인가? 슬프도다. 우리 백정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비극에 대하여 사회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른바 지식 계급에서 압박과 멸시만 하였도다. 이 사회에서 백정의 연혁을 아는가, 모르는가? 결코 천대를 받을 우리가 아닐까 하노라. 직업에 차별이 있다 하면 금수의 목숨을 뺏는 자 우리뿐이 아닌가 하노라. 우리 형평사는 시대의 요구보다도 사회의 실정에 따라 창립 되었을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선 민족 이천만의 한 구성원이며 갑오년 유월부터 칙령으로써 백정의 칭호를 없앴에 우리도 평민이 되지 않았는가.

애정으로써 상호 도와 가며 생활의 안정을 꾀하며 공동의 존영을 이루고자 이에 사십여 만이 단결하여 본사의 목적하는 바의 취지를 선명히 내세우노라.

(조선 경남 진주) 朝鮮 慶南 晉州

(형평사 발기인 일동) 衡平社 發起人 一同

■ 형평운동의 목표

- 주지의 첫 부분과 사칙 제3조에 명확하게 나타남
- 계급타파, 모욕적 칭호 폐지, 교육장려, 상호친목 등
- ‘인간으로서의 평등과 해방’은 창립 이래 형평사가 한결같이 추구한 가장 중요한 운동 목표

■ 1923년 5월 13일, 진주좌(옛 진주극장)에서 창립축하식 행사 거행

- 형평사는 창립축하식을 통해 대외적으로 창립 선포
- 각 지방에서 백정 대표자 100여 명을 포함한 400여 명 참석
- 자동차 3대로 진주 시내를 돌며 선전지 7천여 장을 시민들에게 배포
- 강상호의 개회사에 이어 신현수의 취지설명
- 국내외 사회운동단체 및 개인의 축전 낭독, 내빈 축하
- 각 지방 백정에게 형평운동을 이해시키고 선전하여 참여를 유도
- 지사나 분사의 설립을 직접 주도하거나 지원하고자 선전대를 편성·파견
- 제1대 신현수와 장지필, 제2대 강상호와 이학찬
- 분사나 지사의 지도자들은 축사나 강연을 통해 형평운동의 취지를 널리 알림

■ 언론 및 사회운동단체의 반응

- 형평사가 창립되자 당시 각 언론기관과 사회단체에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격려
- 재일 단체, 국내 청년·노동운동 단체 등 일반사회운동 단체들의 관심과 기대
- 창립축하식 때 진주노동공제회 간부 강달영, 보천교의 조유제 등 축하
- 각지의 형평 지사·분사는 노동공제회 혹은 청년회의 후원 아래 조직되는 경우
- 지역 유지들의 지원으로 형평사는 사회운동단체의 일원으로 공인받고 자리 잡음

■ 형평사 창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요인

- 백정 출신들이 열렬하게 성원하고 참여
- 본사 임원들의 적극적인 지도력이 형평운동 확산에 기여
- 언론 및 사회운동 단체의 깊은 관심과 지원

■ 목적과 지향

- 일차적인 목적은 백정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고 평등한 대우를 획득하려는 것
- 창립기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사원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 내재
- 계급타파, 모욕적 칭호 폐지, 교육 장려, 사원들의 상호친목 등은 주지와 사칙에 나타남
- 형평사는 인권 선언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하는 활동을 전개
- 본사 간부들이 경남 경찰국을 방문하여 호적부에 기록된 백정 신분 표시를 삭제 요구
- 일부 분사에서는 신분을 상징하는 머리 모양을 없애기 위해 집단적으로 단발 거행

- 백정들의 공동체 의식을 재건하고 전통 산업에서 누리던 특권을 복원하려고 함
-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시 복원하고 산업의 기득권을 되찾고자 한 것은 교육의 장려, 사원끼리의 친목을 강조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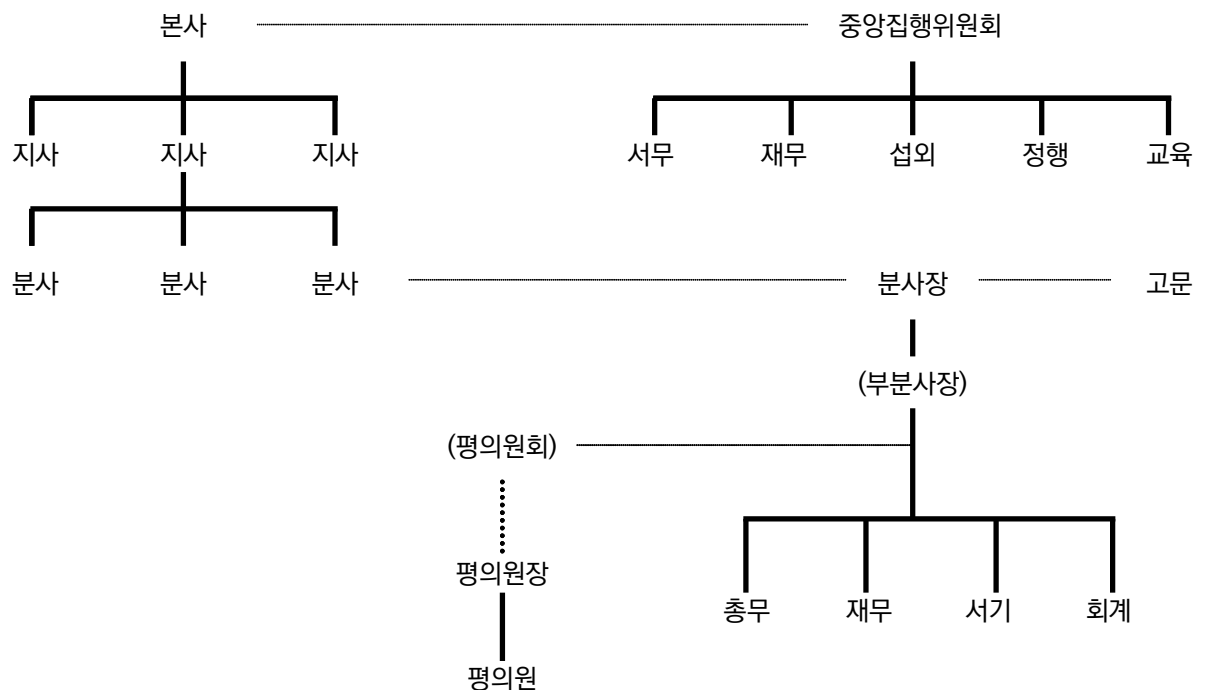
■ 전략

- 대규모 집회의 빈번한 개최
- 언론계와 사회운동 단체를 최대한 활용
- 초기 형평운동 지도자들은 합법적인 활동과 점진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온건한 활동
- 초기 형평사의 활동은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일제와의 대결을 조심스럽게 자제하는 태도
- 공개적이며 합법적인 활동은 일제와의 갈등을 피하면서 백정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형평운동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

3. 형평사의 조직과 확대

- 형평사 사칙에 의하면 형평사는 본사, 지사, 분사의 위계질서를 갖춘 전국 조직
- 1923년 창립 이후 조직체계는 1928년 4월 25일 제6회 전국대회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
- 형평사의 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초기부터 사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회비로 충당
- 참여자와 지지자들
 - 형평사원의 자격, 의무, 권리 등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음
 - 비백정 출신의 지도자들은 3.1운동 이후 여러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백정 출신의 지도자들은 교육 수준이 높았고 재산을 축적한 부유한 상인
 -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은 대부분 백정 출신으로 젊은 연령층
 - 사회운동가들, 언론인, 교회 목사, 정부 관리, 의사 등 지역의 유력인사

〈형평사 초기 조직〉



■ 형평사 조직

- 본사
 - 매년 4월 25일·26일에 창립기념식을 겸한 정기총회 개최
 - 안건은 그 시기의 당면문제를 총괄적으로 반영
 - 토의 결과는 각 하부 조직에 전달되어 활동방향이나 활동내용의 기본지침으로 활용



▲ 형평사 본부사람들

- 중앙집행위원회

- 전국 지사와 분사 의견을 수렴, 각종 사업의 기본방향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추진
- 각 지방의 유력자 선출, 그 가운데 핵심 지도자를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임
- 형평사의 중앙집행위원은 부유한 백정 출신 및 선진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조직

- 지사와 분사

- 도에는 지사, 군·읍에는 분사 설치
- 지사와 분사는 활동 보고서를 본사에 제출, 상급 기관의 모임에 대표자를 파견
- 지사와 분사는 대개 지사장·분사장 중심의 단일지도 체제
- 대부분의 지·분사에서는 평의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많은 사람들의 참여 유도
- 일부 분사는 고문 자리를 설치·운영하여 형평사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

- 지·분사 조직의 확대

- 창립에서 1935년까지 설립이 완료되었던 지·분사는 187개로 대략 200여 개 정도 추정
 - 지·분사가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1923년 5월부터 12월까지 80개의 지·분사가 설립
 - 지도자들의 파벌 다툼, 반형평사건이 발생하면서 1925년까지 조직의 성장은 완만하게 진행
 - 1926년과 1927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성장 추세
 - 1920년대 후반기의 형평 운동은 경남, 경기, 충남, 전북의 중부권에서 활발하게 전개
 - 1928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32년부터는 폐지되는 지·분사가 많아지는 것을 보임

〈도별지 · 분사 수〉

도별 연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	강원	황해	평남	평북	함남	기타	계
1923	19	12	7	7	17	8	2	5		1	1			80
1924														83
1925	23	11	7	10	18	8	6	7	3	2		4		99
1926	20	25	11	23	24	9	11	12	4	1		5		130
1927														150
1928	28	22	6	30	31	8	14	17	1		2	5	2	153
1929	29	23	6	30	28	11	15	16	1			3		162
1930				30										165
1931														166
1932	28	24	7	27	30	14	14	15	1			1		161
1933	26	20	6	26	28	13	12	13	1			1		146
1934														113
1935														98

출처: 고숙화, 『형평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4. 내부의 파벌 갈등

- 창립 1년이 채 안되어 본사의 위치, 활동 방향 등으로 내부 갈등
- 신분과 사회적 배경의 차이도 복합적으로 작용
 - 진주본사 지도자들은 비백정 출신의 사회운동가, 부유한 백정 출신
 - 서울파 지도자들 대부분은 백정 출신의 지식인
- 형평 운동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두 집단 지도자들 사이의 인식 차이
 - 서울파는 전통산업의 권익 보호에 관심(1923년 11월 대전대회)
 - 진주파는 교육, 계몽, 인권 문제에 관심(1924년 2월 부산대회)

■ 파벌 갈등의 출현

- 1923년 11월 7일 대전 ‘전조선 형평대표자 대회’에서 본사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1924년 3월 까지 본사를 대전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
- 1924년 2월 10일~11일 부산 ‘형평사 전조선 임시총회’에서 1924년 4월 정기총회 때 본사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여 대전대회 결의 번복
- 형평사 혁신동맹회 결성
 - 이 과정에서 형평사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본사의 서울 이전을 주장했던 장지필·오성환 등은 형평사혁신동맹회 결성
 - 1924년 2월 13일 부산 ‘형평사 혁신동맹 준비위원회’ 개최

- 1924년 3월 12일 충남 천안 ‘형평사 혁신동맹 창립총회’ 개최
 - *본사의 서울 이전, 형평 잡지 발간, 피혁공장 설치 등 결의
 - *본사 대표로 참석한 강상호 등의 부정행위 비판
 - 1924년 4월 25일~26일 서울 ‘형평사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형평사 혁신 동맹대회’ 개최
 - *‘형평사 혁신 동맹 총본부’ 정식 선언 및 규약 발표
 - 1924년 4월 25일 대전 진주의 형평사 본부가 주최한 ‘형평사 창립 1주년 기념 전국 형평사대회’ 개최
 - 진주파는 형평사 연맹 총본부, 서울파는 형평사 혁신 총동맹으로 활동
 - 서울파는 1924년 4월 서울로 본사 이전
 - 진주파는 젊은 형평사원들을 주축으로 형평청년회 조직
 - 서울파와 진주파는 1924년 4월 25일 형평사 창립 1주년 기념식을 따로 개최함
- 통합의 노력
- 지도자들의 노력
 - 신현수, ‘혁신’ 용어 사용하지 않으면 본사 서울로 이전 반대하지 않음
 - 1924년 5월 초 진주파 대표자들이 서울 본부를 방문하여 통합추진 모임 제의
 - 서울파 간부들도 진주 본사로 방문하여 통합추진 모임 가질 것을 합의
 - 진주 본사에 방문한 서울 본사 간부들을 진주 형평사원들이 폭행하면서 문제 발생
 - 일반 사원들의 노력
 - 부산본사 사원들은 ‘형평사 통일 후원 기성회’를 독자적으로 결성
 - 진주본사 일부 사원들은 임원직 사임, ‘형평사 통일 촉진회’ 결성
 - 젊은 사원들의 노력
 - 서울의 정위단, 진주의 형평청년회와 같은 하위조직 결성
 - 1924년 8월 15일 대전, 형평사 통일 대회
- 조선 형평사 중앙총본부(朝鮮衡平社 中央總本部) 탄생
- 1924년 7월 23일 대전 ‘형평 경진양사 위원 간담회’ 양측 합의
 - 1924년 8월 15일 대전 ‘전조선 형평사 대회’
 - 31개 지·분사에서 온 대표자 51명을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
 - 강상호, 장지필은 분열의 책임을 지고 중앙집행위원에서 사임
 - 조선형평사 중앙총본부로 명칭 변경
 - 본사의 위치를 서울로 옮기는 것 합의
 - 중앙집행위원 40명 선출하고 그중 상무집행위원 6명 선임(서무, 재무, 교육, 조사, 섭외, 산업)
 - 비백정들과의 갈등 문제가 주요 당면 과제로 논의
 - 1925년 4월 24일, 창립 2주년 기념식 겸 전조선 형평사 3차 정기 대회
 - 지분사 대표 130여 명과 내빈 70여 명

- 형평 운동의 진행 방침과 교육 및 생활 문제 논의
- 총본부 간부 선임에 있어 몇 단계를 거쳐 선임(전형위원 선임-전형위원이 중앙집행위원 후보자 추천-전체 대의원회에서 승인)
- 4월 25일을 형평의 날로 명명

■ 진주파와 서울파의 차이점

- 진주파 지도자들은 인권운동으로서의 형평운동 강조
 -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원들이나 자녀들의 교육과 계몽에 치중
 - 회사 설립은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원들을 돕는다는 생각
 - 백정들의 전통산업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함
- 서울파 지도자들은 인권과 교육 문제는 진주파와 비슷, 사원들의 생활 문제에 관심
 - 사원들의 생활 문제를 인식하며 해결책을 모색
 - 피혁공장 설립, 고기값 통제 권한, 도살장을 사원들이 직접 경영
- 서울파는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우호적인 협력 관계, 그중 일부는 사회주의 경향
 - 다른 사회운동과 구별되는 형평 운동의 특수성 인식
 - 형평사 내부의 혁신 강조

〈진주파와 서울파의 차이점〉

	진주파		서울파
지지 기반	경상도		충청, 전라, 경기, 강원도
지도자 배경	비백정 지식인, 부유한 백정		백정 지식인
우선 과제	(공통)	인권 증진, 사원 자녀의 학교 입학, 야학 개설	
	(차이점)		
	출판사 설립	잡지 발간, 피혁 회사 설립 도부 임금 고정 제품의 공동 판매 추진	
성향	“온건”		“진보”

출처: 김종섭, 『형평운동연구』, 민영사, 1994

■ 파벌 갈등의 결과

- 본사를 진주에서 서울로 옮김
- ‘조선 형평사 총본부’로 명칭 변경

- 지도 세력의 변화
 - 실질적인 주도권은 중부 지역의 백정 지식인들에게로
 - 중앙집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중부지역 지도자들 중심
 - 본사가 서울로 옮겨가면서 중부권에서 활동하던 지도자들의 권한 강화
- 다른 사회운동과의 교류 증대
 - 1923년 창립 초기에는 특정 지역이나 개인적 수준으로 한정
 - 일본 유학생 단체 북성회(北星會)가 1923년 여름방학 순회 강연
 - 1924년이 되면 노농 운동이나 청년운동 단체들의 관심과 지지
 - 조선 노농총동맹과 조선 청년총동맹이 각각의 창립 총회에서 형평운동을 지지
 - 사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형평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단체가 늘어난 것은 다른 사회 운동 단체와의 교류가 증진된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사회운동 단체에 확산된 파벌 다툼의 여파는 형평운동에서도 나타나게 됨

5. 하위단체의 출현

○ 조직체계(총본부-지사-분사)와 별도로 독자적인 하위단체 출현

- 정위단(사상단체, 서울 총본부), 형평 청년회(진주 분사), 형평 학우회, 형평여성회 등 여러 목적을 가진 단체

■ 정위단(正衛團)

- 1925년 50여 명의 회원이 1월 1일 서울 총본부에서 발기회를 개최하고, 1월 10일 창립총회 개최
- 형평사의 사상단체, 전위대(前衛隊)로 자처
- 총본부 지도부의 파벌싸움에 불만을 품은 이경춘, 서광훈 등 진보적인 젊은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
- 형평운동의 분열과 비백정들의 반형평 활동에 반대하는 뜻을 뚜렷하게 함
- 파벌 갈등에 대한 이들의 단호한 태도는 형평사의 통일을 원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영
- 상임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상무위원들은 서울에서 활동하던 형평운동의 핵심활동가
- 주요활동
 - 사원들의 산업활동 보호와 상부상조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원들을 돕는 것
 - 외부 세력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원들의 직업 보호

- 정위단 강령 -

우리는 우리의 생활 안전을 도모할 일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침해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일

우리는 호상 간의 친애부조(親愛扶助)를 도모할 일

- 서울 총본부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중화에 실패, 조직도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함
- 정위단 해체 후 서울 총본부와 몇몇 지방 분사에 정위부가 하나의 부서로 설치

■ 형평 청년회

- 1924년 3월 31일 진주파 본부인 진주에서 결성
- 진주 본사와 서울 총본부의 파벌 대립에 반발하는 젊은 활동가들이 주도
- 각지의 형평 청년회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입장
- 1925년 12월 16일 형평청년총연맹 발기
 - 전국 형평 청년 단체는 49개
 - 각 지역의 형평 청년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국 조직
- 형평 청년회 회원들은 젊은 층의 사원으로 형평 운동의 중추 세력으로 성장
- 형평 청년회의 젊은 사원들은 비교적 진보적이며 급진적인 사상에 호의적임
- 활동
 - 학술강연이나 토론회의 개최
 - 마르크스-레닌주의 중심의 사회과학연구
 - 신문이나 기관지의 간행을 통한 지식과 교양의 연수 및 계급 의식의 고양과 촉진
- 1927년에 사회주의 성향의 청년 활동가들은 ‘모든 청년 단체를 해체하여 강력한 지도력 아래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하며 형평 청년 단체의 해소를 주장하기 시작
- 1928년 4월, 조선 형평 청년 총연맹 전국대회에서 해소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
- 총본부와 지사, 분사 조직에 청년부 설치

■ 형평 학우회

- 1925년 5월부터 조직에 관한 논의되어 6월 13일에 서울에서 창립
 - 학생 사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계
 - 창립 총회를 서울 본부에서 개최하고 장지필, 이소를 고문으로 선임
 - 경성에서 유학하고 있던 백정출신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조직
 -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직접 도움, 회원들의 상호친목을 통하여 형평의 뜻을 실천
- 형평 학우회의 활동이나 조직 확대는 기대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함
- 1927년 8월 9일 천안에서 제2주년 기념식
 - 형평 학우 총동맹으로 명칭 개칭
 - 주요 관심사는 교육과 학생에 관련된 것

■ 형평 여성회

- 형평사는 창립 당시부터 여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짐
- 지방 지·분사에서도 형평 여성에 관한 논의와 결의가 이루어짐

- 기관지 등을 통해 러시아 여성의 생활상을 소개하여 형평 여성의 의식 각성을 위해 노력
- 1926년 4월 전국대회에서 형평여성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이후 지속적으로 의제 채택
- 1928년 4월 전국대회에 한 명의 여성 대표자가 공식적으로 처음 참가
- 1929년 5회 전국대회에서 여성 사원 문제 논의
- 일부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형평 여성회 조직

6. 형평사의 활동

○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 생활·생존권 수호 운동, 교육과 계몽 활동, 기관지 발행, 지방 순회 활동, 상호부조 활동

■ 정기총회의 주요 의안

- 총회에서 토의안이나 결의안 등의 안건은 그 시기의 당면문제를 총괄적으로 반영
 - 경찰의 압력으로 상정된 의안들이 순조롭게 토의되지 못한 경우도 있음
 - 1930년까지 전국대회 의안은 제3회 전국대회(1925) 안건이 전형적인 모델

- 제3회 전국대회 안건 -

- 차별문제: 관공리 혹은 일반인에 의한 차별 철폐 문제
- 생활문제: 백정의 전통적인 생활 방편인 도수관련업에서 누렸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되찾기 위한 생존권 확보 문제
- 사원 자녀의 교육과 사원의 교양 문제
- 조직유지와 활동의 활성화 방안
-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관계 등

- 1931년 제9회 전국대회에서는 형평사 해소의 건의안 상정
 - 조직 문제와 경제문제가 주요한 쟁점
 - 차별 철폐 문제는 의례적인 안건에 불과
- 1935년 제13회 전국대회에서는 대동사로 개칭
 - 대동사로 개칭후에는 차별문제는 상정되지도 않음
 - 사원의 경제적 문제가 주된 관심사
- 전국대회의 결의안·토의안은 실질적으로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짐

■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

- 형평운동의 1차적인 목표로 백정 해방과 인간 평등은 중요 과제
- 차별에 대항하는 활동은 전국의 지·분사가 모두 참여하여 형평운동 기간 내내 이어짐
 - 비백정들에게 형평의 의미를 선전하고 사회 전반에 관심을 요구
 - 형평사 창립으로 백정은 일상적으로 당해온 차별이나 편견에 집단적으로 저항

- 호적에 백정이라는 신분 표시의 삭제 요구, 관리들에 의한 공적인 차별의 철폐 요구

형평사 창립 직후 경상도 고등과장이 형평사를 방문했을 때, ‘호적에 백정’이라고 기재된 것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호적을 정리하라고 각 군청에 지시

- 공적 사회 활동이나 자녀의 학교 입학에 가해졌던 억압이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백정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음

■ 생활·생존권 수호 운동

- 생활·생존권 문제
 - 백정들은 전통적 권리였던 도부업·수육판매업 등 특정 산업 분야에서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
 -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는 형평혁신동맹이 총본부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기 시작
 - 강력한 반제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일제의 통치정책의 철폐나 수정을 의미
- 도축장 관련 문제
 - 19세기 말 이후 도축장에 대한 행정적 규제 강화
 - 일본인을 포함한 자본가들의 투자 확대로 도축장에 대한 백정의 권한은 점차 약화
 - 1920년대 도축장의 운영과 소유권은 지방관청이나 그 지원을 받는 일본인들 단체로 넘어감
 - 형평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여 사원이 그 운영권을 되찾는 일을 전개함
- 도부 문제
 - 도축에서의 전매권이 점점 상실되어 수입이 열악해지자 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 전개
 - 지방의 지·분사와 도(道) 단위 대회에서 도부 요금 문제 논의
 - 특정 지역의 투쟁이 형평사 조직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알려져 다른 지역과 연대하거나 총본부 차원에서의 투쟁이 이루어지기도 함
- 도수(축)세 관련 문제
 - 도부의 임금 인상이나 작업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세금에 관련된 문제로도 활동을 넓힘
- 수육 판매 문제
 - 형평사에서는 수육 판매 조합 결성을 통해 육가 담합, 공동생산과 공동판매, 수육 판매 장소 확보 등 당면과제를 추진하고 독점적 영역을 유지하려는 운동
- 피혁 산업
 - 백정의 전통산업 중 이윤이 가장 많음
 - 일부 분사에서는 관청, 일본인 친목 단체, 부유한 개인에게 넘어간 건피장의 소유권을 되찾으려고 노력함(논산분사)
 - 가내 수공업으로 생산한 우피 제품의 공동 구매 및 공동판매망을 구축하려는 시도
 - 피혁조합·피혁공장·우피 관련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임

- 유기제조
 - 유기업자는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음
 -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형평사활동을 어떻게 하였는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음

〈1930년경 백정의 주요 직업 상황〉

직업	목부노동자 축산노무자	제화공 혜(鞋)제조공	죽(竹)세공 유(柳)세공	피혁제품공 골(骨)제품공	육판매업주	피혁제품 판매업주	총계
인원	3,319명	5,090명	5,835명	1,045명	4,464	502명	20,255명
비율	16.4%	25.1%	28.3%	5.2%	22.6%	2.4%	100%

출처: 고숙화, 『형평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교육과 계몽 활동

- 교육 활동
 - 형평사의 가장 중점적인 활동
 - 지·분사는 대부분 교육부를 두어 아동의 교육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임
 - 일반 학교 입학 운동과 함께 야학·강습소·기숙사 등을 설치하여 운영
 - 사원 및 사원 자녀의 의식 고양과 계몽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강습소와 야학
 - 야학에서는 한국어, 산수, 일본어, 상식 등과 같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교육
- 계몽 활동
 - 강좌, 강연, 연설회, 강습회의 개최
 - 사원의 교양은 계급 의식과 상식을 갖추기 위한 것
 - 무시당하지 않고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
 - 일제의 식민 통치를 벗어나려면 민족 역량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민족주의 전략과 일치

1924년 2월 10일·11일 부산에서 개최된 형평사 전조선임시총회의 안건 중(中)

‘사원 교양의 건’

- 사회적 상식을 갖추고자 각지 지·분사에 단기 강습회 등을 개최할 일
- 계급 의식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신문 잡지를 구독하며 강연강좌의 시설을 이행할 일

■ 기관지 발행

- 기관지의 발행은 본부와 지·분사가 서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 정책 결정에 지·분사 등 아래로부터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장치인 동시에 정보교환 수단
- 기관지는 각 지·분사에서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할당받아 그 대금을 발간비용에 충당
- 기관지 『세광(世光)』

- 1924년 3월 12일 천안에서 열린 혁신동맹창립총회에서 형평 잡지 발간 결의
- 6월부터 발간하였으나 곧 발행금지 처분
- 기관지 『정진(正進)』
 - 1929년 창간호 발간
 - 1932년 5월 25일 총본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형기(衡旗)』로 개칭
 - 1933년 쯤 『형기』라는 이름으로 발행 시작
 - 형평운동 관련 논설, 일반 상식, 시·수필·소설 등으로 형평운동의 계몽과 함께 읽을거리 제공
 - 필자들은 널리 알려진 형평운동가들과 일반 사원도 참여
- 팸플릿 형식의 간행물 『형총(衡總)』 발간
 - 총본부에서 지·분사에 알려야 할 사항
 - 새로운 소식 또는 조직원의 교양과 의식화 작업을 위한 내용
 - 제작이 쉽고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 팸플릿 형태로 발간
- 형평전위동맹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등장하는 『별』, 『형평』, 『동지』, 『적우(赤友)』, 『농민』 등의 출판물이 비밀리에 출판되어 배포되었다고 함



▲ 『정진』 표지

■ 지방 순회 활동

- 형평운동이 지속되는 전 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계속
- 지방 백정에게 형평운동을 이해시키고 선전하여 참여를 유도
- 순회위원, 특파위원, 선전대 파견
 - 지사나 분사 설립을 직접 주도하거나 지원하고자 파견
 - 일반인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지방의 사원을 후원, 구호하고자 파견
 - 지방 창립대회에서 형평사 창립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현황보고, 축하연 또는 별도의 강연

■ 상호부조 활동

- 상호부조 활동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자연스러운 활동
- 형평사 창립후 반형평 사건으로 희생된 사원이나 가족에 대한 후원·구조활동

「형평사 사칙」 중(中) 세칙

제4조 근검질소(勤儉質素)를 주로하고 상호부조의 미풍을 조장한다.

제5조 본사원 중 질병 또는 천재에 걸린 자로써 그 정상이 불쌍한 자에게는 본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를 구호한다.

제6조 본사원 중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조위하고 일반회원에 주지시켜 상호조위의 덕을 행하게 한다.

■ 사회운동 단체와의 교류 활동

- 노동단체와 교류
 - 형평사의 창립대회나 기념일에 참석하여 축하, 직접적으로 형평지사 설립 등에 협조
 - 1923년 5월 창립축하식에 진주노동공제회 강달영 참석
 - 1923년 5월 진주에서 반형평사건이 발생했을 때 노동공제회의 중재로 해결
 - 형평사에 대한 일반인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
 - 전국 각지의 운동가들은 노동운동과 형평운동 등 다른 부문 운동 단체들과의 연결 시도
- 농민단체와의 관계
 - 일제하의 농민운동과 형평운동과의 관계는 당시의 신문매체에는 그다지 나와 있지 않아 추정하는 정도
- 청년 단체와의 관계
 - 형평사의 조직과 운동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
 - 1923년 4월 형평사 창립총회 진주청년회관에서 개최
 - 형평청년운동은 청년운동의 영향을 받아 창립되고, 활동하며, 해체
 - 부문 운동으로 청년운동에서 조직된 청년단체들도 형평운동의 지원에 조직적으로 후원
 - 청년운동 총본부 조선청년동맹 창립대회(1924.4.21.~4.24.)에서 “노동자·농민운동 및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형평운동을 계급적 방향으로 이끄는 동시에 원조한다.”라는 안건 가결
- 사상단체와 관계
 - 창립초기부터 북성회, 평문사, 점진사, 적기사 등의 단체로부터 격려
 - 1924년 4월 조선노동총동맹 ‘형평운동 원조’결의
 -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 ‘형평운동을 계급 전선에서 인도함과 동시에 원조’할 것을 결의
 - 1924년 11월 북풍회의 형평운동 지원 의사 밝힘
 - 1925년 4월 화요회가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를 개최할 때 형평사본부는 가맹단체의 일원으로 참가
 - 형평청년회가 전국조직체로 조선형평청년총동맹을 조직하여 사상단체적인 강령을 발표
 - 1925년 8월 예천 사건 때 사회운동 단체가 형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을 계기로 형평사는 사상적인 갈등 속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일반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1925~1926년 1·2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분파투쟁은 형평사에 영향
 - 1926년 12월 장지필·서광훈 등 주요 간부가 고려혁명당 사건에 관련되어 검거

■ 일본 수평사와 연대 활동

- 형평사와 수평사의 공통점
 - 조선의 백정, 일본의 에다 들이 차별 철폐, 평등, 인간해방을 목표로 창립하여 활동
- 형평사와 수평사의 교류는 먼저 수평사 측의 제안에 의해 시작

- 1923년 수평사 제2회 대회 ‘수평사와 조선인의 제휴에 관한 건’ 제의
- 1924년 3월 3일 제3회 대회에서 ‘조선의 형평운동과 연락을 꾀하는 건’ 제안
- 수평사에서 교류 제안이 있을 무렵 형평사는 파벌 갈등 중
- 교류내용

시기	내용	비고
1924년 4월	제2회 전국대회(형평사 창립 1주년 기념)에 대분수평사(大分水平社) 저원구중(猪原久重)이 참가해 소감 발표	
	『수평신문』 제2호의 기사에서 ‘장지필이 일본을 방문’하여 남긴 말(형평사혁신동맹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백정 이외의 형평사원은 물러나야 한다) 소개	
1924년 9월	중앙집행위원 김경삼 등 일본에 파견하여 수평사와의 연대·제휴 가능성 타진	
1924년 10월	수평사 측에서 하관수평사(下關水平社) 집행위원장 하전경일(下田耕一) 등 형평사 방문	
1925년 4월	제3회 전국대회에서 진주본사(형평사연맹총본부)와 서울의 형평사혁신동맹이 <u>조선형평사중앙총본</u> 으로 통합 -수평사 측에서 북촌장태랑(北村庄太郎) 외 2명을 파견 -1924년 8월 15일 대전에서 형평사통일대회에 일본인 원도철남(遠島鐵男)이라는 사람이 수평사 간부 소개장을 가지고 와서 환영회를 열어주었다는 보고(그런데 이후 10월 일본 신문의 보도에 서는 원도철남이 스파이였다고 보도됨)	
1925년 8월	사회주의자 중서이지조(中西伊之助), 오무메오를 초청하여 의견교환, 중서이지조는 강연에서 형평사와 수평사의 공동전선을 제창	
1926년 4월	제4회 형평사대회에서 전국수평사와 제휴·촉진을 결의	
1926년 5월	제5회 전국수평사대회에 형평사에서 김경삼을 파견	
1927년 1월	수평사 상무집행위원 고환익남(高丸義男)이 제휴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형평사를 방문하였고 장지필과 회담	
	조선형평사총연맹은 집행위원 이동환을 일본에 파견하여 수평운동 시찰(기념사진 찍음) 일본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이동환이 “일본의 수평운동은 이미 계급타파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접어들었으므로 수평사와의 제휴는 시기상조이다.”라고 말함	
1927년 4월	제5회 형평사전국대회에 일본수평사 송본청(松本清) 파견	
1927년 12월	제6회 전국수평사대회에 김상봉을 파견	
1928년 4월	형평사 제6회 전국대회에서 일본수평사와 제휴를 정식을 결정	
1928년 5월	제7회 전국수평사대회에 형평사 대표로 이동환 참석, 연대익사 표시 -형평사의 연대 제의에 수평사는 제휴방침까지 정하였지만 결정을 보지 못함 이후 일본의 수평사 운동이 침체에 빠지면서 형평사와 수평사의 연계는 실현되지 못함	

7. 고려혁명당 사건

- 정의부(正義附) 창립(1925)
 - 남만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자치기구 역할
 - 사회주의 단체의 세력 확장에 대한 대항과 민족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려는 의도

■ 1926년 4월 만주 길림성에서 고려 혁명당 결성

- 만주에서는 정의부가 주축을 이룸
- 국내에서는 천도교와 형평사의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
 - 의장 양기탁, 책임비서 이동구(이소, 형평사 중앙집행위원) 선임
 - 정의부를 모체로 만주 지역의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민족진영 인사들이 조직한 단체
- 1926년 12월 28일 집행위원 이동락이 만주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
- 1927년 1월 일제는 국내에 활동 기반을 두고 있던 간부들은 모두 체포
 - 이동구(형평사총본부 중앙집행위원) 및 장지필, 오성환, 조귀용, 서광훈 등 중앙 총본부의 상무집행위원
 - 이동구, 오성환 등은 형평사 총본부의 활동을 만주로 확대하려는 의도
-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풀려난 장지필, 조귀용, 서광훈은 모두 형평운동에 복귀하여 1929년 4월 전국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재선
- 오성환은 1930년 4월 정기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다시 선출
- 유공삼은 대동사로 바뀐 1935년에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



▲ 고려 혁명당 사건으로 체포된
형평운동 지도자들
(1.이동구 / 4.유공삼 / 6.서광훈 /
7.장지필 / 8.오성환 / 12.조귀용)

■ 고려혁명당 사건은 1920년대 중반 형평사의 성격 변화를 보여줌

- 형평사의 지도자들이 ‘민족 해방’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됨
- 민족 해방을 위해 지도자들이 국내외의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
- 젊은 지도자들이 고려 혁명당 사건 이후에 새로운 지도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주의 성향은 더욱 강화
- 형평운동은 신분 해방의 문제를 넘어, 민족 해방, 계급 해방까지 관심 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짐.
- 조직확장, 실질적인 활동성과와 함께,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한 관심 증대가 1920년대 후반 기 형평운동의 특징

8. 형평운동에 대한 반발 : 초기 반(反)형평사건(1923-1925)

○ 형평운동 추진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의 충돌 사건

- 형평사원들의 지위 상승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 기존의 사회질서가 바뀌는 것에 저항하는 부류
- 사원들과 경제적 이해를 놓고 다투는 사람들

○ 갈등 원인

- 남부 지방에서 일어난 충돌 사건들은 수 세기 동안 백정들이 겪어온 사회적 상황을 반영
- 백정들이 형평사 창립과 더불어 불공평하고 굴욕적인 사회적 관습에 저항하게 되자, 이를 억압하려는 사람들과 충돌
- 사원들을 억압하려는 사람들은 “형평사가 백정들의 버릇을 버려놓고 있다”며 창립대회나 창립 축하식 같은 형평사 행사 공격
- 신분 질서와 사회적 차별 관습에서 비롯된 갈등과 함께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업무 수행 과정의 불만의 불만
- 전통산업의 이권 다툼을 둘러싸고 일어난 경우도 적지 않음

- 구체적 사례 -

불손한 말투를 썼다는 이유

태도가 공손하지 않았다는 이유

사원들이 공적인 일(학교 설립 기금 헌금, 사원이 면의원 선거에 출마 등)에 참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충돌
사회운동 단체의 행사에 사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는 이유

학교 교육과 관련된 문제

정부 관리들의 간섭과 횡포, 수탈로 인해 일어나는 충돌

전통산업의 이권 다툼을 둘러싼 경우

- 형평사 창립 이후 사원들이 단결하여 고기 값 통제
- 일반인들이 정육점을 개설하거나 별도 조합을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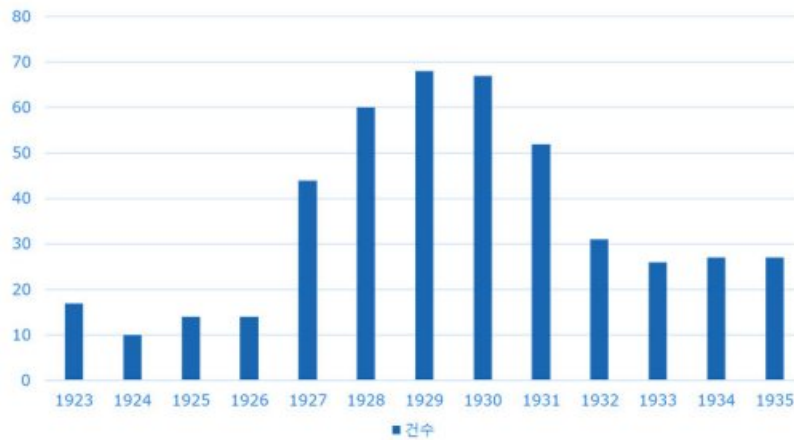
〈신문에 보도된 충돌 사건: 1923-1925년〉

사례	날짜	지명	사건의 주요 원인	출처
(1923년)				
1	5월 24일	진주	진주 사건 참조	
2	6월	울산	경찰의 무례한 행동	조선, 1923.06.14.
3	6월 20일	군산	기부금 거절	조선, 1923.06.28.
4	7월 4일	군산	음식점에서의 다툼	동아, 1923.07.08.
5	7월 12일	삼가	일반인과의 술자리	동아, 1923.08.04.
6	7월 13일	목포	고기 판매의 이해관계	조선, 1923.08.23.
7	8월 14일	김해	김해 사건 참조	
8	8월 18일	칠곡	일반인의 구타	매일, 1923.08.24.
9	8월 19일	하동	분사 창립 탄압	조선, 1923.08.25.
10	9월 4일	제천	분사 창립 탄압	조선, 1923.09.09.
11	9월 7일	통영	경찰과의 다툼	조선, 1923.09.24.
12	10월	합천	면장의 세금 오용	조선, 1923.10.22.
13	11월	삼가	경찰의 무례한 요구	조선, 1923.12.03.

사례	날짜	지명	사건의 주요 원인	출처
(1924년)				
14	5월 7일	수원	일반인에게 불손한 행동	동아, 1924.05.26.
15	5월 8일	진영	불손한 언어	조선, 1924.05.16.
16	5월	고성	사사로운 다툼	조선, 1924.05.12.
17	6월 12일	홍성	불손한 언어	조선, 1924.06.21.
18	7월	대구	개인 간의 다툼	매일, 1924.07.07.
19	6월 4일	부여	고기 판매 과정의 불손한 행동	조선, 1924.07.14.
20	6월 9일	입장	5장 볼 것	
21	12월 25일	강경	관공서 관리의 차별	조선, 1925.01.02.
(1925년)				
22	3월	고양	개인 감정과 도부 해고	조선, 1925.03.15.
23	3월 18일	홍성	일반인에게 불손한 행동	조선, 1925.04.14.
24	4월 6일	옥구	일반인에게 불손한 행동	조선, 1925.04.19.
25	4월 10일	달성	학교 입학 불허	동아, 1925.05.21.
26	4월 11일	청주	경찰의 모욕	조선, 1925.04.15.
27	4월 18일	영양	학교 입학 불허	조선, 1925.04.24.
28	5월 7일	진천	개인간의 다툼	동아, 1925.05.18.
29	5월 25일	진주	고기 가격 싸움	동아, 1925.05.28.
30	6월 4일	안성	수육 공동 판매 금지	동아, 1925.06.09.
31	6월 9일	익산	불손한 언어	조선, 1925.06.14.
32	7월 24일	삼가	일본인의 모욕	동아, 1925.07.30.
33	8월 9일	예천	예천 사건 참조	
34	8월 13일	현풍	웅변 대회에 내용	조선, 1925.08.16.
35	8월 20일	왜관	분사 창립	동아, 1925.08.18.
36	9월 1일	논산	불손한 언어	조선, 1925.09.06.
37	9월 5일	김천	면의회 의원 선거	동아, 1925.09.08.
38	10월 8일	황등	호적에 백정 표시	동아, 1925.10.13.
39	10월 9일	논산	음식점의 모욕	매일, 1925.10.13.
40	10월 16일	영주	불손한 태도	조선, 1925.10.22.
41	11월 6일	단양	불손한 태도	조선, 1925.11.11.
42	11월 6일	해미	일반인과의 음주	조선, 1925.11.12.
43	11월 21일	서울	도부 해고	동아, 1925.11.23.
44	12월 14일	보령	관공서 관리의 모욕	동아, 1925.12.20.

출처: 김종섭, 『형평운동연구』, 민영사, 1994

〈비백정인들과 형평사원 또는 백정들과의 충돌 건수〉



○ 형평사의 대응 전략

- 형평사는 형평운동 반대의 움직임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
- 진상조사위원 혹은 특파원 파견
- 응원대나 결사대를 조직하여 파견·원조
- 경고장 발송과 당국에 재발금지를 요구
- 정부의 상급 기관이나 법에 호소
- 다른 사회 운동 단체의 지원 등
- 도부들은 도수를 거부하는 동맹파업으로, 수육판매업 직원들은 영업 중지 등의 방법으로 저항

■ 진주의 반 형평 사건

- 1923년 5월 13일 창립 축하식 여흥을 위해 기생들에게 공연을 요청하였을 때 거부당함
- 1923년 5월 14일 진주 농민 2천 5백여 명은 형평사 해산을 모의하여 형평사본부 습격 기도
- 5월 24일 진주지역 24개 동·리의 농청 대표자들이 중안동 사무소에 모여 형평사 반대
 - 쇠고기 불매운동 결의
 - 그날 밤 농민 수백 명이 ‘형평사 공격’, ‘신백정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라고 쓴 깃발을 들고 진주 시내를 돌며 시위
- 5월 25일 쇠고기 불매 운동 본격화하여 마을마다 2명씩 감시조 지정 및 음식점 점검
- 5월 26일 24개 동·리의 농청 대표자 70여 명이 의곡사에 모여 5가지 사항 결의

- 결의사항 -

형평사와 관계있는 자는 백정과 동일한 대우를 할 것
 쇠고기를 절대 사 먹지 않을 것
 진주청년회에 형평사와 관계 맺지 못하게 할 것
 노동단체에 형평사와 관계 맺지 못하게 할 것
 형평사를 배척할 것

- 사회운동가들이 형평운동의 지지 의사를 밝히고, 진주노동공제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6월 중순에 마무리



▲ 진주의 반형평사건을 널리 알린 동아일보(1923.5.30.)

■ 김해 사건(경남 김해)

- 사건의 시초
 - 1923년 5월 12일(축하식 전날) 김해 청년회와 야학 합성학교의 간부들이 북성회 강연단을 맞이하기 위해 야학교 학생들과 형평사원들에게 역까지 마중을 나갈 것을 지시
 - 야학교 학생들 중 일부가 백정들과 함께 가라고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나가지 않음
 - 5월 13일(당일) 북성회 강연장에 전날 역에 나가지 않았던 학생들의 입장을 제지
 - 학생들은 청년회 간부들이 백정들을 감싸고 돈다고 불평
 - 평소 형평운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흥분
 - 시간이 흐를수록 형평사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적대감은 집단행동으로 표출
- 최초의 사건은 1923년 8월 14일 발생
 - 수천 명의 폭도들이 형평사 창립을 후원한 김해청년회관과 합성학교(야학교)를 공격
 - 8월 15일(그 다음날)은 형평사원뿐만 아니라 형평사에 호의적인 단체의 간부들, 업무, 훈인으로 형평사원과 관련된 사람들 공격
 - 8월 16일(셋째 날)은 마을 밖 형평사원들의 집단 거주지역까지 가서 가옥까지 부수며 폭력을 행사
 - 1923년 8월 16일(셋째 날)이 되어서야 경찰 개입
 -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도 형평사원들과 주민들 사이의 긴장은 계속
- 진주본사에서는 강상호와 장지필을 파견, 진상을 파악, 사원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
- 김해 청년회 간부들도 일반인들과 형평사원 양측을 중재하려고 노력
- 1923년 9월 24일 양측 대표자들은 공식적인 화해에 동의
 - 주민들은 형평사를 더이상 반대하지 않으며 사원들을 친절하게 대하기로 함
 - 형평사측은 폭력으로 수감된 사람들에게 위로를 표하기로 함

- 형평사측에서 보면 손해 배상은 없었고 오히려 가해자들을 위로해야 하는 상황
- 주민들로부터 형평 운동을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

■ 입장 사건(충남 천안군 입장면)

- 1924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
- 입장 사건의 시초
 - 1924년 7월 9일, 비백정 자녀들이 형평사원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수업 거부
 - (확실히 않으나) 정구시합 중 욕설이 발단이 되어 비백정 주민의 자녀들과 형평사원 자녀간 싸움 발생
 - 비백정 주민의 자녀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형평사원 자녀들의 퇴학 요구
 - 교장 송명환과 교사 조상진은 비백정 주민의 자녀들을 따로 모아 놓고 불필요한 설명과 비난을 함
 - 교장과 교사의 이런 행동에 형평사원들은 자녀들의 등교 거부
 - 서울 본사(형평사 혁신회)에서는 장지필 등 간부들을 파견하여 학교 당국의 불공정한 처사에 항의
 - 교장이 사과를 약속하고 형평사원들이 다시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로 함
 - 형평사원 자녀들이 등교하자 비백정 주민들이 반발하여 자녀들의 등교 거부
 - 등교 거부가 반복되자 교사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 비백정 주민들은 교사들의 사직서 철회를 권하고 모든 책임을 형평사원에게 전가하여 공개 사과를 요구
 - 형평사원들은 교장 송명환과 교사 조상진에게 공개 사과 요구
 - 교장과 교사 조상진은 형평사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 선동
 - 비백정 주민들은 고기 불매 운동을 벌였고 형평사원들은 도살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
- 사건의 발단
 - 고기가 필요한 마을 주민이 형평사원 김희연에게 부탁하여 도살을 하는 상황이 발생
 - 형평사원들은 김희연으로 인해 단체 행동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
 - 임시 특별 총회에서 김희연을 처벌하기로 만장일치 결의
 - 8월 13일 사원들은 강제적으로 김희연을 집회장에 끌고 나와 사형에 처할 것을 선고
 - 경찰이 급습하여 7명을 체포하고 7개월 만인 1924년 12월에 석방
- 서울 중앙총본부 상무위원 장지필, 이이규가 충남 경찰국과 천안 경찰서 방문하여 석방 요청
- 입장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형평사원 자녀들이 겪는 차별을 보여주고 있음
- 경찰과 일제의 법 집행 과정에서 형평사를 억압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적대적 태도를 볼 수 있음
- 반형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형평 운동 사상 최초의 일

■ 예천 사건(경북 예천)

- 사건 이전의 상황
 - 예천분사는 1923년 8월에 약 40여 명의 예천 백정들에 의해 창립, 활동 미흡
 - 1925년 7월 형평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흥 청년회원들이 단체로 형평사에 가입 결의
 - 예천 경찰서는 일제에 협조적인 예천 청년회를 중심으로 사회단체를 통합하려고 노력 중
- 사건의 원인
 - 1925년 8월 9일 예천 분사 창립 2주년 기념행사
 - 예천 청년회장 김석희 축사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으나 행사는 마침

- 예천 청년회장 김석희 축사 -

백정들을 억압하는 것은 죄악이 될 수 없다. 어느 시대나 국가나 국법이 있는데, 그 국법을 어겨서 백정이 된 것 아닌가. 그러나 백정을 억압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의 죄가 아니다. 조선 5백년 동안 압박을 받았지만은 형평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칙령을 통해 차별은 철폐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형평사는 필요가 없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공부만 잘하면 군수도 될 수 있다.

《조선일보》, 1925년 8월 14일: 《동아일보》, 1925년 8월 14일

- 창립축하식 후, 백정이 일반인들을 모욕했다면서 수백 명의 군중이 예천분사 사무실에 난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사원들을 집단 구타
- 다음날도 계속되자 형평사원들도 대항하였고 많은 상해자 발생, 심지어 사망자 발생
- 형평운동을 지원해 주는 신흥 청년회원들까지 공격대상
- 형평사가 결성되고 신흥 청년회에서 지지하자 백정들의 태도가 불손해지고 양반들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백정인들의 주장
- 서울 총본부 간부 장지필, 이소 등이 예천분사로 돌아가는 길에 군중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안동병원으로 이송
- 예천분사 간부들은 폭력 사건의 책임이 예천 노농회에 있다고 결론짓고 예천 노농회에 경고문을 보내고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자 인책 요구
- 형평사 안팎의 여러 단체들은 즉각적인 지지
- 전국 언론의 포괄적이며 상세한 보도가 예천 상황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
- 일제는 이 사태를 편파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운동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함
- 예천 사건의 의미
 - 형평사원들이 당한 폭력의 범위와 정도가 가장 큰 사건
 - 지역 사회 유지들이나 일제 식민 세력의 지원을 받은 반형평 사건
 - 형평사원과 지지 세력의 저항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안으로는 형평사원들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짐
 -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의 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되어 형평운동의 활성화와 다른 사회운동 단

체와의 교류 확대에 도움

- 이후 사회운동 단체들의 압력으로 “형평사는 내부의 결속에만 노력하고 그 외 사회 문제에는 적당한 시기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림

■ 언론 보도로 보는 제천 사건(충북 제천)

- 형평사원에게 강제로 패랭이를 씌우다 -

9월 2일 충청북도 제천읍에서는 형평사원들이 자동차 2대로 제천 읍내를 돌아다니며 형평사 취지 선전문을 돌렸다. 9월 4일에는 형평사 제천분사 창립축하식을 바쁘게 준비하던 중, 갑자기 노동자 수백 명이 몰려 들어 와서 미리 쳐 놓은 천막을 떼어버렸다. 축하식에 참여하기 위해 진주에서 출장 온 이원열을 끌어내어 몽둥이와 발길로 기절할 정도로 마구 때렸고, 청주에서 출장 온 백순만·길상수·길광식 등을 붙잡아 무차별 폭행하여 중상을 입혔으며, 본래 그곳에 살던 형평사원들도 구타를 당해 그중 4명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 더욱 기괴한 일은 ‘평량자(平凉笠, 패랭이)’ 수십 개를 가지고 와서 (형평사원들에게) 강제로 씌워 패랭이 1개당 30전씩을 강제로 받아낸 뒤 골목으로 끌고 돌아다니면서, “본래 백정 놈은 패랭이를 쓰는 법인데, 갓이 다 무엇이나?”라고 야단을 쳤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경찰이 출동하여 그중에 주모자 11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

- 《동아일보》 1923.9.11.

9. 형평운동의 결과 및 의의

○ 1920년대 후반기 형평운동

- 지도세력, 전략, 조직, 활동 내용 등 변화
- 다른 사회운동 단체의 우호적인 협력, 비백정 보수주의 세력의 반형평 활동, 일제의 적대적 억압

○ 1930년대 민족 해방 운동은 극심하게 위축, 일부는 변질, 소수는 과격한 투쟁으로 전환

○ 1930년대 바깥 환경의 변화는 형평운동의 변화에 영향

- 일부 집단은 계급 해방을 통한 신분 해방 주장
- 일부는 민족 해방이나 계급 해방을 포기하고 형평사원의 이익에 집착하며 일제 세력에 적극 협력

가. 형평운동의 분열

■ 신간회의 성립과 해체

- 1927년 2월 좌우익의 민족 해방 운동가들의 협력 단체
- 민족 해방 운동을 주도하는 핵심적 위치
- 1931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총회에서 우파 회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간회 해체 결의
 - 신간회가 부르조아 지식인들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계급 해방 운동의 장애가 된다고 판단
 - 신간회를 유산자 집단으로 인식한 코민테른의 압력
 - 개량주의적 부르조아인 신간회를 해소한 뒤 본질적인 계급 투쟁을 위한 혁명조직을 만들려는 것

■ 분파 투쟁

- 분파 투쟁의 첫 움직임은 1927년 9월 13일 전라북도 형평대회에서 “여러 가지 운동이 방향전환하는 이 시기에 형평사도 조직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안
- 1928년 4월 25~26일에 개최된 형평사 제6회 전국대회에서 조직 개편과 신강령 채택
 - 조직 개편은 사회운동의 방향전환론 즉 정치 투쟁에 영향을 받음
 - 지방 형평사는 형평사 지부로 개칭, 형평 청년총연맹을 해체하고 총본부에 청년부 설치
 - 신강령 채택

- 신강령 -

아등(我等)은 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하는 인권해방을 근본적 사명으로 함.
 아등은 아등 자신으로 단결하여 형평운동의 원만과 단일의 축성을 기함.
 아등은 일반 사회단체와 공동제휴하여 합리적 사회건설을 기함.
 아등은 본 계급의 당연한 실제적 이익을 위하여 투쟁함.
 아등은 본 계급의 훈련과 교양을 기함.

- 창립할 때 형평사의 주지는 각종 사회단체의 일반적 특성인 실력양성주의를 반영하였으나 사회주의자는 무산계급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신단체를 독자적으로 조직
- 이후 강령도 계급 관계에 입각한 ‘신사회 건설’, ‘계급의식의 각성과 일치단결’이라하여 사회주의적 성격 강조
- 형평사는 제6회 전국대회 이후 신분해방운동과 아울러 일반사회운동단체와 제휴하여 민족운동 내지 사회주의 운동 등 본격적인 대중운동으로 나아갈 준비

■ 형평사 내 사회주의 활동가들의 주장

- 형평사가 그동안 사원들의 계급 의식을 일깨우는데 기여하지 못함
 - 계급 투쟁을 못하도록 가로 막는 역할
 - 형평사원들의 올바른 계급 상황 인식과 그에 부응하는 활동 방향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
 - 유산 사원과 무산 사원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무산 사원에 대한 유산 사원의 착취가 늘고 있다고 주장
- 분화의 심화와 갈등의 노출이 형평 운동 정신 상실
- 불의(不義)에 저항하고 계급 이익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원래의 목적을 잃은 형평사는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 형평사를 해소한 뒤, 각자 종사하는 분야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계급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
- 형평 운동의 독자성이나 고유한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계급 갈등과 투쟁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급진적인 주장

■ 형평 청년총연맹의 해체

- 1927년 무렵 청년운동 내부에서도 스스로 대중운동 일부로 파악하려는 경향
 - 청년운동 내의 반제통일전선 역량을 조직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하여 중앙집권적 지도체계 수립
 - 사회주의자는 기존의 연합체적 형태의 청년연맹에 대한 조직 개편 시작
 - 형평청년단체는 해체하고 형평청년은 군부단일청년동맹에 가맹시키고, 그 외의 형평청년은 형평사 내 청년부로 편성하고자 함
 - 조선청년동맹은 단일청년단체 조직을 만들기 위해 형평청년단체에 대해 스스로 해체하고 일 반청년단체에 가입할 것을 촉구
 - 형평 청년총연맹과 각 지방의 형평청년회는 조선청년총동맹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단체가 다 수에 이르게 됨
 - 조선청년총동맹의 형평청년단체 해체 권고 문제는 형평운동 내부의 온건파와 급진파의 갈등을 일으키게 됨
- 제6회 전국대회 이후 형평 청년총연맹의 해체 문제가 대두되면서 급진파와 온건파 대립
- 1927년 11월 15일~11월 16일 개최된 전강원형평대회에서 '형평청년단체' 해체 결의
- 형평청년총연맹은 1928년 4월 26일 제4회 대회에서 정식으로 해체 선언
- 형평 청년총동맹의 해체 문제는 온건파와 급진파의 갈등은 이후 형평사 해소문제로 이어짐

■ 형평사 해소론의 등장

- 형평사를 해체하고 각 부문별 계급 운동에 동참하자는 주장
- 1930년대 초 사회주의 단체의 영향을 받은 젊은 지도자들에 의해 제기
 - 급진파: 백정에 대한 인권유린이나 사회적 차별은 자본주의 소산이므로 노동자·농민의 계급 투쟁과 제휴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정치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
 - 온건파: 형평운동은 백정의 인권 옹호와 차별 철폐의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외부의 정치·사상단체와 제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 형평사 해소론은 1931년 봄 경기도 수원분사에서 처음 제안
 - 추진 세력은 젊은 활동가 집단
 - 형평 운동을 계급 운동의 한 부문으로 재편하려 함
 - 강원도 양양, 충남 입장 분사 등 다른 지역의 분사들이 지지하고 나섬
- 1931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정기 전국대회
 - 수원분사의 정식 안건 상정
 - 55개 분사 17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
 - 형평사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해체 시키려는 세력의 대결장
 - 지도력의 주도권을 두고 노장층(장지필 등)과 소장층(이동환 등)의 대립
 - 해소안에 대한 제안은 부결처리 됨

- 중앙 총본부의 지도부는 해소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힘
- 해소안 지지파는 이후에도 여러 분사나 지사의 회의에서 해소안을 관철 시키려고 시도
 - 1931년 내내 형평 사원들의 주요 쟁점은 해소와 관련된 내용
 - 해소론자들의 주장은 시기적으로 형평사를 해체 시킬 만큼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 해소 논쟁의 파장

- 해소를 주장하는 집단은 사회·경제적 평등 사회를 이룩하려는 계급 투쟁
- 노장층 지도자들은 형평사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원래의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사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 형평사가 사원들의 집단 이익을 도모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람
 - 사원들의 전통 산업에 대한 기득권을 되찾고 유지하는데 열성적
- 1930년대 초반 형평운동의 급격한 침체
 - 활동을 중단하거나 휴면상태에 들어간 분사가 곳곳에서 나타남
 - 총본부의 재정 상태가 나빠져 기본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움
 - 중앙집행위원회는 빚을 갚기 위해 사무실 매각 검토
- 1932년 4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정기 전국대회
 - 4개 분사 112명의 대의원 참석
 - 참석자들은 활동의 퇴조를 극복하고 형평운동을 다시 부흥시키는 방안을 중점 논의
 - 새로운 잡지 『형기(衡旗)』의 발간 추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함
- 1933년 4월 24일 제11회 정기 전국대회
 - 약 40개 분사 대의원 110여 명 참석하여 총본부 사무실에서 하룻동안 개최
 - 형평청년 전위동맹 사건으로 각 지역의 젊은 지도자들이 대거 경찰에 갇힌 상황
 - 동인공제사(同人共濟社) 설치에 관한 건, 제명되었던 6개 분사의 복적, 새 임원 선출
 - 지도력은 초기의 혁신 세력이었던 노장층으로 넘어감

나. 형평청년전위동맹(衡平靑年前衛同盟) 사건

○ 형평청년전위동맹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것은 『동아일보』 1933년 1월 27일자 기사

■ 사건의 시작

- 수육판매조합 창설을 둘러싼 형평사원 간의 갈등
 - 1931년 2월 광주의 형평사원 조홍풍(趙弘豐) 외 20여 명의 유산층이 수육판매조합을 창설하려고 함
 - 형평사 전복책임자 이동환이 광주에 와서 전남 책임자 신선문과 제휴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 다시 12월에 조합창립이 재거론되자 신선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분규가 발생

- 광주경찰서 고등계에서 분규 문제를 내사하다가 공산주의 비밀결사인 형평청년전위동맹이 존재함을 발견
- 1933년 1월 24일 광주에서 신선문과 문재귀가 경찰에 체포되고 각 지역의 활동적인 젊은 형평사원들을 구금

■ 사건의 경과

- 8월 초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발표, 심문을 받은 형평사원 수는 100여 명
 - 1929년 4월 20일 서울 총본부 숙직실에서 비밀 단체인 형평청년 전위동맹을 결성
 - 봉건 세력에 대한 투쟁을 밝히는 강령 채택
 - 동맹 파업을 유도하고 형평사를 해체하여 공산주의 단체를 결성하려고 한다는 죄목
-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이동안(환) 등 14명 구속
 - 분파 투쟁에서 급진 세력의 핵심 지도자들
- 1933년 7월 31일 경찰로부터 혐의자들 검찰로 인계(1월 24일~)
 - 1934년 12월 28일 검찰에서 마무리
 - 검찰은 대부분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처분
 - 구속된 14명도 1년 5개월을 끌다가 마무리
- 1935년 11월 27일 ~ 1936년 3월 20일 법원에서 1심 재판 진행
 - 다른 공산주의 운동 사건에 관련된 이종률(징역2년)을 제외한 모두 무죄 선고
- 1936년 6월 1일 ~ 1936년 11월 21일 2심(복심) 재판 진행
 - 1936년 11월 25일 형평사의 젊은 지도자들 석방
 - 이미 형평사는 사라지고 대동사가 탄생한 지 2년이 됨

■ 일제의 조작 사건으로 보임

- 침략전쟁을 준비 중이던 일제는 군수품인 가죽 제품의 원활한 공급 필요
- 피혁 제품을 취급하는 형평사원들의 긴밀한 협력 요구
- 형평사원들(특히 급진 세력, 젊은 지도자, 소장층) 활동을 억누를 필요성
- 경찰이 형평사 내의 급진 세력을 몰락시키려고 의도함
- 급진 세력의 위축으로 형평사는 경제적 이익단체로, 사원 간의 친목 단체로서 성격만을 지니게 됨

다. 대동사(大同社)로 개칭과 변질

■ 상황

- 1931년 해소론 논쟁, 1933년 형평청년 전위동맹 사건으로 형평사의 활동은 급격하게 퇴조
- 형평사원들의 전통산업에 확산되어 가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일어남
 - 주요 관심 사항은 세습적인 전통산업의 보호
 - 경제적 이권을 위한 활동 강화를 위해 1933년 동인공제회 설립 모색

■ 대동사로 개칭

- 1935년 4월 24일 서울 중앙기독교 청년회 강당 제13회 정기 전국대회
 - 약 140여 명의 대의원 참여
 - 형평사에서 대동사로 명칭 변경
 - 12년의 역사를 지닌 형평 운동이 막을 내림

- 대동사로 명칭을 바꾼 이유(장지필) -

처음 형평운동을 일으켰을 당시 약 12년간의 기간을 예상하여 이를 선전·사업·실행의 3기로 나누어 착착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거의 3기의 과정을 모두 실천했기 때문에 형평운동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중과 같은 수준에서 같은 보조로 운동을 전개한다는 의미에서 명칭도 새로 고친 것입니다.

- 명칭이 대동사로 바뀌면서 활동의 성격도 바뀜
 - 경제적 권익에 관련된 내용
 - 형평사 빛을 갚기 위한 서울 총본부 회관의 매각
 - 형평사 창립 초기 지도자 강상호, 이성순 활동
 - 서울 본부 대전으로 이동
 - 이익 집단의 성격이 강해지고 식민지배 세력에 대한 협조도 주저하지 않게 됨
- 조합의 결성과 관련된 내용
 - 형평사에서 주장하던 조합은 고리 제품을 만드는 사원이나 고기 판매업자, 도축장 일꾼 등 경제적 곤란한 사원들을 대상
 - 대동사는 가장 부유한 계층인 피혁상들을 위한 조합 결성주도
- 1939년 4월 24일 대전 정기 전국대회
 - 대동사 해체안 상정되었으나 50여 명의 대의원만 참여하여 조직의 해체는 반대
 - 장지필을 총본부의 집행위원장으로 선임
 - 안팎의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동사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을 것임

■ 대동사 시기의 지도력 변화

- 형평청년 전위동맹 사건으로 형평사 내의 급진 세력들이 총본부의 지도 집단에서 몰락
 - 초기 파벌싸움을 벌였던 진주파와 서울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등장
 - 1920년대 후반 급진적 젊은 지도자들이 부상하자 서로 협력 관계를 형성
- 민족 해방에 관심을 기울였던 고려혁명당 사건의 연루자들 대부분이 대동사 임원이 됨
- 대동사 시기에 새로이 등장하는 임원도 있음

■ 형평운동의 변질(대동사의 특징)

- 주요 관심은 부유한 사원 중심의 경제적 이익 보호, 전통산업 특히 이윤이 높은 피혁업과 정육

업의 기득권 유지, 이익단체로 전환

- 공개적으로 일제에 협력, 경제적 이익에 주력하면서 식민지배 세력에 적극적이며 공개적으로 협조
- 1938년 군용기 대동호와 기관총을 일제에 헌납하는 한편 국방헌금에도 힘쓰고 있으며, 피역통 제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군에 납품을 꾀하기도 함
- 1940년 이후에는 형평사의 중추기관이었던 도부조합이 일제의 관제조합인 조선축산조합에 흡수되었다가 해방후 한국축산기업조합으로 개칭

라. 형평운동의 성격과 의의

■ 성격

- 형평운동의 1차적 목표
 -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 인권을 확립하려는 신분 해방 운동
 - 교육, 계몽, 생활 향상 등을 통한 공동체의 발전
- 우리나라 역사상 근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반(反)차별 인간 해방 운동
 - 관청의 호적이나 학적부에 기록되었던 백정 신분 표시는 공식적으로 철폐
 - 백정 자녀들의 학교입학 허용
 - 차별에 대한 저항과 평등을 지향한 의식과 관습 확산
 - 사원들과 일반인들의 의식변화가 병행하여 일어남
- 형평사의 일부 지도자들이 민족 해방을 목적으로 고려 혁명당 사건에 가담
- 젊은 지도자들 중심의 활동이나 해소론 주장 등에서 계급 해방운동

형평운동의 성격 변화

- 신분 해방 → 민족 해방 → 계급 해방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내포
- 초기의 지도자들은 인권운동
 - 혁신파의 핵심 지도자들은 민족 해방을 추구하는 고려 혁명당에 참여
 - 192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젊은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경향 아래 급진적 활동 성향을 보임

■ 의의

-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철폐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를 쟁취하려는 신분해방 운동
- 우리 역사상 근대적 의미로 인권운동, 사회평등 실천운동으로서의 의의
- 봉건잔재를 타파하고자 하는 사회개혁운동
- 사회주의운동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전개

■ 현재의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평등 대우 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
- 성, 인종, 장애, 다문화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교육 정도, 종교 등의 사회적 조건, 빈곤, 재산 정도 등의 경제적 조건 등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고 차별하는 현상 존재함

III. 형평운동 100년사와 형평정신의 현재화 방안 인식 조사

1.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경남권 주민들이 형평운동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 그리고 경남(진주)정신에서의 형평운동의 가치와 정신이 현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인지하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형평운동의 기념사업에 필요한 방향 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함.
- 경상남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구글 설문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함.
- 경상남도를 진주지역과 진주 외 지역으로 크게 나누고, 진주지역은 동·면까지, 진주 외 지역은 시·군까지만 표시하게 함.
- 형평운동 100년사와 형평정신의 현재화 방안 연구의 목표 모집단은 경남권에 거주하는 학령연령 이상의 인구집단이며, 설문에 응한 이들 중 경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결측처리하여 형평운동에 대한 경남 인구 534명의 인식을 조사하였음.
- 경남지역을 위치와 인구를 고려하여 크게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 진주 지역과 진주 외 지역 간 인식 차이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서부권은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8개 시·군, 중부권은 창원(마산, 진해), 함안, 의령, 창녕 등 4개 시·군, 동부권은 김해, 양산, 밀양 등 3개 시, 남부권은 통영, 사천, 고성, 거제 등 4개 시·군을 포함시킴.

2. 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인구의 일반적 특성

- 설문에 응답한 534명 중 경남지역에 해당하는 492명의 인구적 특성은 다음 표1과 같음.
- 지역 권역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진주를 중심으로 경남지역을 서부(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중부(마산-창원, 함안, 의령, 창녕), 남부(통영, 사천, 고성, 거제), 동부(김해, 양산, 밀양)의 4개 권역으로 분류함. 이외에 부산 응답자가 소수 있었음.
- 연령적으로는 10대(21.9%)와 50대(33.5%), 40대(20.2%)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직업상으로는 교육자(30.6%), 학생(27.0%)의 비중이 높고 직장인(14.6%)이 응답자 중 다수를 차지. 지역적으로는 진주(38.0%)를 중심으로 서부(22.0%)권역의 응답자가 다수 존재.

표 1 조사대상의 인구적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n = 492		100
성별	남자	48.3
	여자	51.7
	계	100
연령	10대	21.9
	20대	8.1
	30대	10.7
	40대	20.2
	50대	33.5
	60대	5.6
	계	100
학력	초재	3.4
	초졸	1.5
	중졸	15.5
	고졸	6.6
	대재	4.9
	대졸	43.8
	석사	20.8
	박사	3.6
	계	100
직업	농축산업	0.9
	자영업	7.7
	회사원	14.6
	교육자	30.6
	공무원	9.0
	언론인	0.4
	학생	27.0
	활동가	2.8
	종교인	0.6
	주부	3.4
	은퇴	0.8
	기타	2.3
	계	100
지역	진주	38.0
	중부(창원, 함안, 의령, 창녕)	15.0
	서부(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22.0
	동부(김해, 양산, 밀양)	10.2
	남부(통영, 사천, 고성, 거제)	13.0
	기타(부산)	1.8
	계	100

나. 형평운동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인지 경로

표 2 형평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 5점 척도

(단위: 평균점)

구분		비율
전체 n = 492		100
성별	남자	3.09
	여자	2.86
	계	2.97
연령	10대	2.48
	20대	2.92
	30대	2.94
	40대	3.01
	50대	3.25
	60대	3.26
학력	계	2.97
	초재	3.72
	초졸	1.88
	중졸	2.22
	고졸	2.36
	대재	2.83
	대졸	3.10
	석사	3.39
	박사	3.62
	계	2.97
직업	농축산업	3.40
	자영업	2.83
	회사원	2.58
	교육자	3.39
	공무원	3.37
	언론인	3.50
	학생	2.55
	활동가	3.53
	종교인	3.00
	주부	2.56
	은퇴	3.25
	기타	3.13
	계	2.97
지역	진주	3.38
	중부(창원, 함안, 의령, 창녕)	2.73
	서부(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2.77
	동부(김해, 양산, 밀양)	2.66
	남부(통영, 사천, 고성, 거제)	2.70
	기타(부산)	2.33
	계	2.97

- 1번 문항: ‘형평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형평운동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5점 척도(1=전혀 모른다, 5=상당히 많이 안다) 로 질문함.
- 교차분석시 성별 등에서의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 학력, 지역 등에서 형평운동의 인식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각 집단별 인식현황과 결과분석

도표 1 연령별 형평운동 인식 수준 5점 척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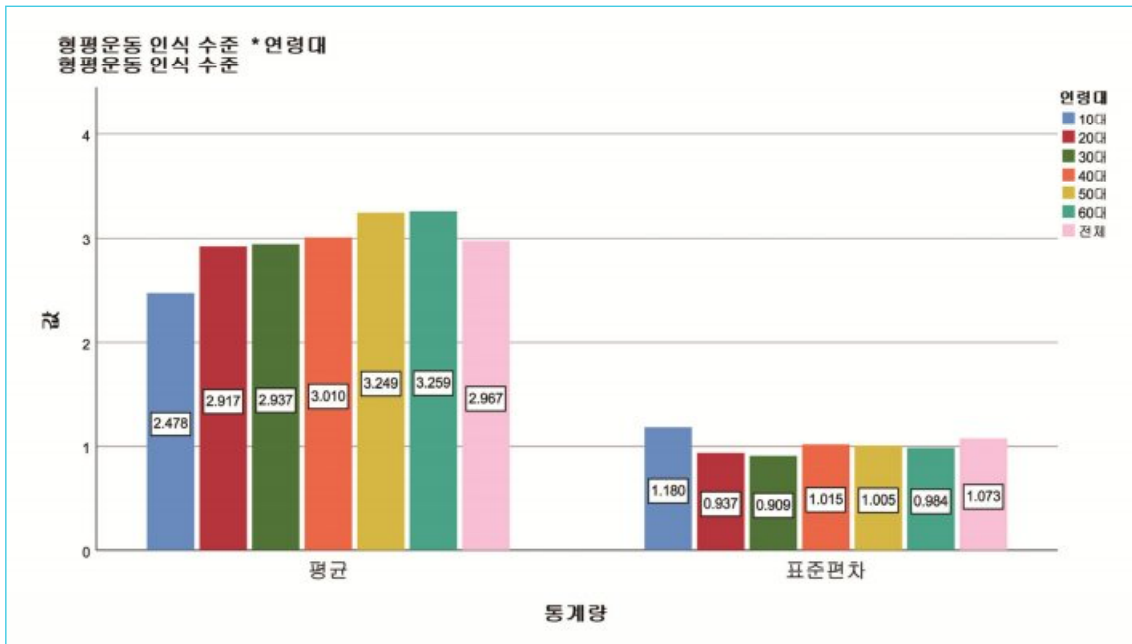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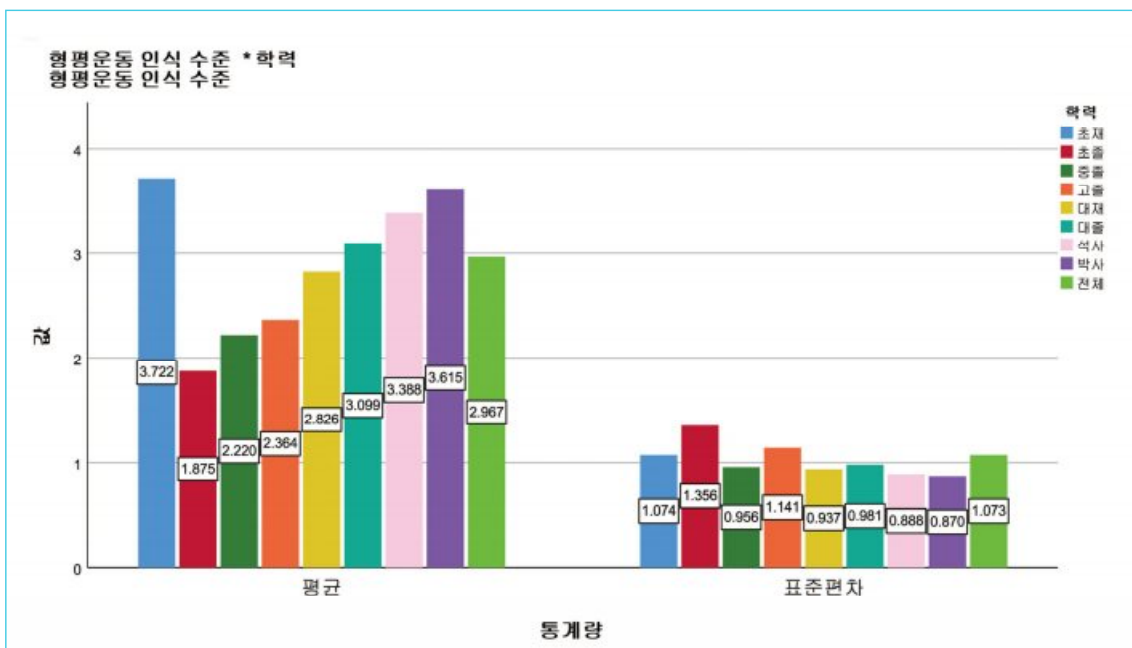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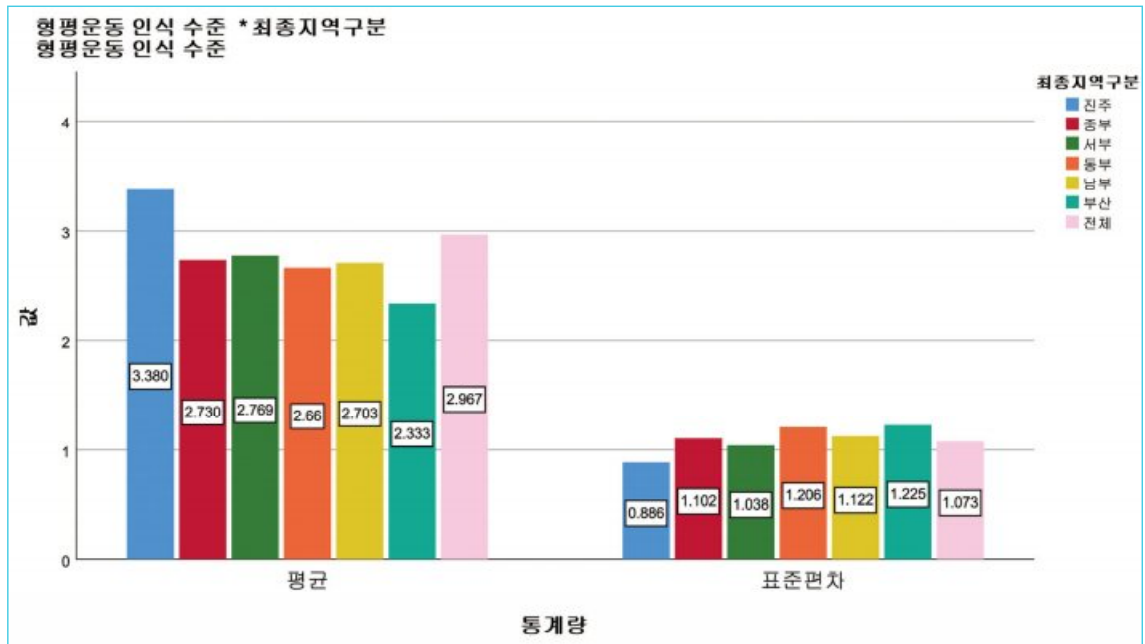


도표 2 학력별 형평운동 인식 수준 5점 척도 평균값



- 연령층의 관점으로는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형평운동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으로 본다면 학력이 높을수록 형평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 자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형평운동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3.722), 이는 인지경로의 교차분석 결과가 말해주듯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교육이 미친 영향으로 보임.

도표 3 지역별 형평운동 인식 수준 5점 척도 평균값



- 지역별 평균값의 차이는 진주가 형평운동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3.380)를 보임.
- 진주를 제외한 경남지역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2.66-2.769).

■ 형평운동의 인지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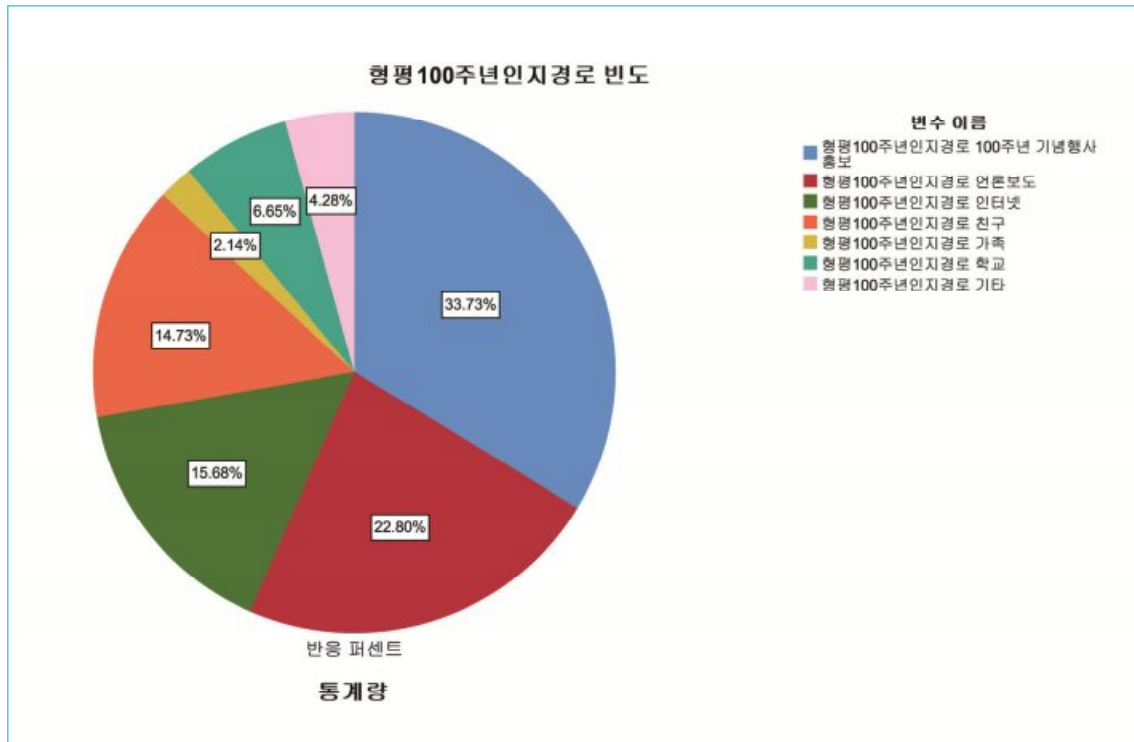
- 1번 문항에서 형평운동을 ‘많이 안다’ 이상으로 답한 152명을 대상으로 형평운동을 알게 된 경로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도표 4>와 같음.
- 주된 인지경로는 책(25.2%), 강연/답사(23.1%), 학교(19.0%)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집단별 교차분석을 <표 3>으로 정리하였는데, 인지경로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학생층의 학교(34.5%), 자영업자의 강연/답사(44.4%)로 나타남.

표 3 형평운동의 인지경로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n = 152			언론보도	학교	강연/답사	책	인터넷	친구	가족
성별	남자	100	13.0	17.9	22.8	24.7	13.0	7.4	1.2
	여자	100	9.1	20.5	23.5	25.8	9.1	8.3	3.8
연령	10대	100	6.1	36.7	6.1	28.6	18.4	2.0	2.0
	20대	100	0	36.4	9.1	36.4	18.2	0	0
	30대	100	9.1	18.2	18.2	36.4	9.1	4.5	4.5
	40대	100	7.7	23.1	29.2	27.7	7.7	4.6	0
	50대	100	15.9	10.6	27.3	21.2	9.8	12.1	3.0
	60대	100	13.3	6.7	33.3	13.3	13.3	13.3	6.7
학력	초재	100	0	46.2	3.8	30.8	11.5	3.8	3.8
	초졸	100	16.7	0	16.7	33.3	33.3	0	0
	중졸	100	13.3	33.3	6.7	26.7	20.0	0	0
	고졸	100	0	25.0	0	0	25.0	25.0	25.0
	대재	100	0	33.3	16.7	16.7	33.3	0	0
	대졸	100	13.5	14.3	23.8	27.8	11.1	8.7	0.8
	석사	100	13.5	14.6	30.2	22.9	8.3	7.3	3.1
	박사	100	0	26.7	33.3	13.3	0	20.0	6.7
직업	농축산업	100	66.7	0.0	0.0	0.0	33.3	0.0	0.0
	자영업	100	11.1	0.0	44.4	22.2	0.0	22.2	0.0
	회사원	100	20.0	5.0	20.0	20.0	20.0	10.0	5.0
	교육자	100	9.9	22.0	27.0	24.1	7.8	9.2	0.0
	공무원	100	17.2	10.3	20.7	24.1	6.9	13.8	6.9
	언론인	100	0.0	0.0	0.0	50.0	50.0	0.0	0.0
	학생	100	5.2	34.5	8.6	27.6	19.0	1.7	3.4
	활동가	100	13.3	0.0	40.0	40.0	6.7	0.0	0.0
	종교인	100	20.0	0.0	20.0	20.0	20.0	0.0	20.0
	주부	100	0.0	0.0	50.0	25.0	0.0	25.0	0.0
	은퇴	100	0.0	0.0	0.0	100.0	0.0	0.0	0.0
	기타	100	14.3	14.3	28.6	14.3	14.3	0	14.3
지역	진주	100	10.1	18.5	25.0	23.2	10.7	9.5	3.0
	중부	100	17.1	9.8	24.4	31.7	9.8	4.9	2.4
	서부	100	15.8	21.1	15.8	26.3	18.4	2.6	0.0
	동부	100	0.0	32.0	28.0	28.0	4.0	8.0	0.0
	남부	100	15.0	25.0	10.0	20.0	15.0	10.0	5.0
	부산	100	0.0	0.0	50.0	50.0	0.0	0.0	0.0

도표 4 형평운동 인지경로



■ 형평운동에 관한 이해 정도

- 1번 문항에서 형평운동을 ‘많이 안다’ 이상으로 답한 152명을 대상으로 형평운동의 내용적 이해 정도도 질문함
- 여기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나타나지는 않았음.

표 4 형평운동의 내용적 이해 정도

(단위: %)

구분		비율	발상지	주요인 물	사회경제적 발생 배경	내부 사정과 분열	외부의 방해	운동의 성격과 의미
전체 n = 152								
성별	남자	100	21.4	17.9	18.8	10.3	10.9	20.8
	여자	100	20.0	20.0	19.3	10.7	9.3	20.7
연령	10대	100	18.4	23.7	17.1	10.5	7.9	22.4
	20대	100	23.3	10.0	20.0	10.0	13.3	23.3
	30대	100	25.6	15.4	20.5	10.3	10.3	17.9
	40대	100	20.8	19.2	20.8	10.0	7.5	21.7
	50대	100	20.2	18.9	18.6	10.6	10.9	20.8
	60대	100	22.7	18.2	18.2	11.4	13.6	15.9
학력	초재	100	20.0	25.0	12.5	7.5	7.5	27.5
	초졸	100	14.3	28.6	14.3	14.3	14.3	14.3
	중졸	100	19.0	19.0	28.6	14.3	4.8	14.3
	고졸	100	20.0	20.0	13.3	13.3	13.3	20.0
	대재	100	21.1	5.3	21.1	15.8	15.8	21.1
	대졸	100	22.3	18.6	20.1	8.4	9.5	21.2
	석사	100	19.6	18.7	18.2	12.6	11.2	19.6
	박사	100	19.4	19.4	19.4	9.7	9.7	22.6
직업	농축산업	100	18.2	18.2	18.2	9.1	18.2	18.2
	자영업	100	17.6	20.6	17.6	11.8	11.8	20.6
	회사원	100	22.2	17.8	17.8	13.3	13.3	15.6
	교육자	100	21.3	18.2	19.6	10.0	9.3	21.6
	공무원	100	24.7	17.8	19.2	8.2	9.6	20.5
	언론인	100	16.7	16.7	16.7	16.7	16.7	16.7
	학생	100	18.8	19.8	17.8	11.9	9.9	21.8
	활동가	100	18.5	25.9	18.5	7.4	7.4	22.2
	종교인	100	25.0	25.0	25.0	0.0	0.0	25.0
	주부	100	22.2	22.2	22.2	11.1	11.1	11.1
	은퇴	100	16.7	16.7	16.7	16.7	16.7	16.7
	기타	100	14.3	14.3	21.4	14.3	14.3	21.4
지역	진주	100	20.5	19.0	18.2	10.5	10.8	21.0
	중부	100	21.3	18.8	21.3	8.8	8.8	21.3
	서부	100	21.4	17.9	20.2	10.7	10.7	19.0
	동부	100	23.1	17.3	17.3	15.4	9.6	17.3
	남부	100	20.8	18.8	20.8	8.3	8.3	22.9
	부산	100	0.0	40.0	20.0	0.0	0.0	40.0

- 다만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물에 대해 아는 정도를 질문한 내용은 인물 간 인식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분산분석시 지역집단 사이의 인식수준의 차이가 강상호, 신현수에 대해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포착됨

도표 5 인물의 역할 인식 정도 4점 척도 평균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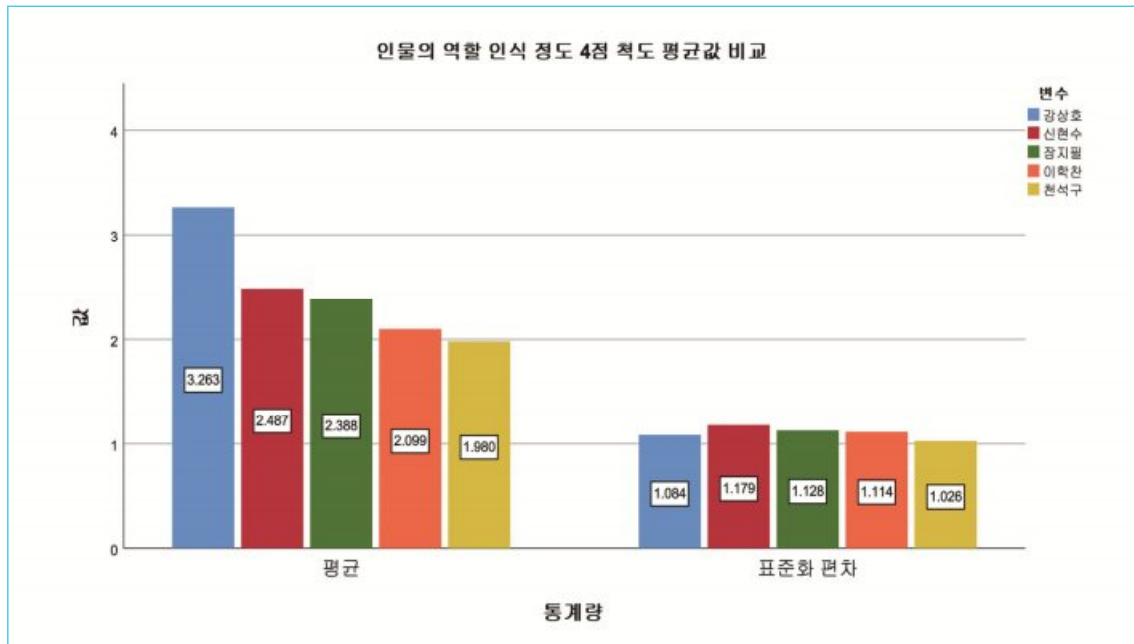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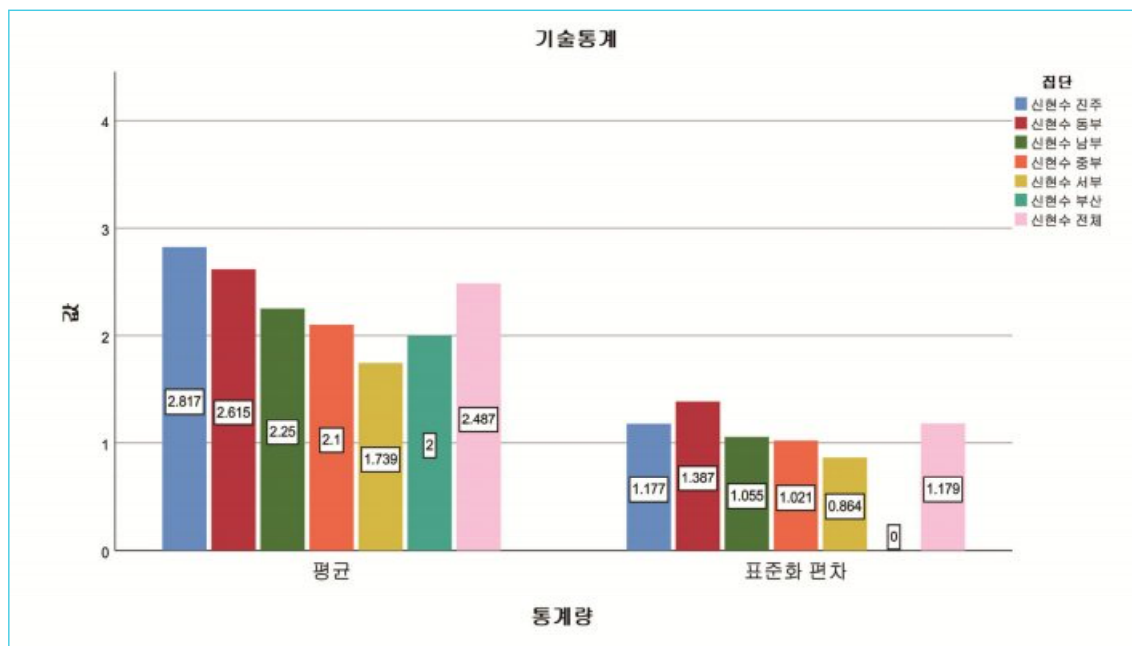


도표 6 경남권역별 강상호에 대한 4점 척도 평균값 비교



도표 7 경남권역별 신현수에 대한 4점 척도 평균값 비교



- 경남지역 주민들은 신현수에 비해 강상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인물에 대한 이해 수준도 진주-동부-남부-중부-서부 지역 순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다.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에 관한 인식 현황과 결과

- 2023년이 형평운동 100주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인지경로, 그리고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289명을 대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기념행사를 질문함
- 형평운동 100주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로는 기념행사 홍보(33.7%)와 100주년을 알리는 언론의 보도(22.8%) 등으로 나타남
- 이는 행사 홍보가 100주년을 인지하는 주요 경로가 되었음을 의미
- 100주년 기념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를 묻는 설문에서는 형평운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의 제작 방송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37.3%)으로 나타남

표 5 형평운동 100주년 인지여부

(단위: %)

	빈도	유효 퍼센트
예	289	58.7
아니오	203	41.3
전체	492	100.0

표 6 형평운동 100주년 인지경로

(단위: %)

	빈 도	유효 퍼센트
100주년 기념행사 홍보	142	33.7
언론보도	96	22.8
인터넷	66	15.7
친구	62	14.7
가족	9	2.1
학교	28	6.7
기타	18	4.3
	421	100.0

표 7 가장 인상깊었던 100주년 기념행사

	빈 도	유효 퍼센트
기념식	34	12.7
초청강연	21	7.8
국제학술회의	22	8.2
스무바다 흰고무래 공연	30	11.2
박물관 전시	25	9.3
형평다큐 제작 방송	100	37.3
음악회	8	3.0
공모전	19	7.1
교원연수	4	1.5
기타	5	1.9
전체	268	100.0

라. 형평운동의 교훈과 진주/경남정신에서의 중요도

- 형평운동의 교훈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질문했고, 그중 형평운동이 ‘조금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422명을 대상으로 형평운동을 어떤 성격으로 이해하는지를 질문했고, 420명이 답변했음
- 그리고 형평운동을 비롯한 각각의 요인들이 진주/경남정신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10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표 8 현재 우리 사회에 형평운동이 주는 교훈 중요성 평균, 5점척도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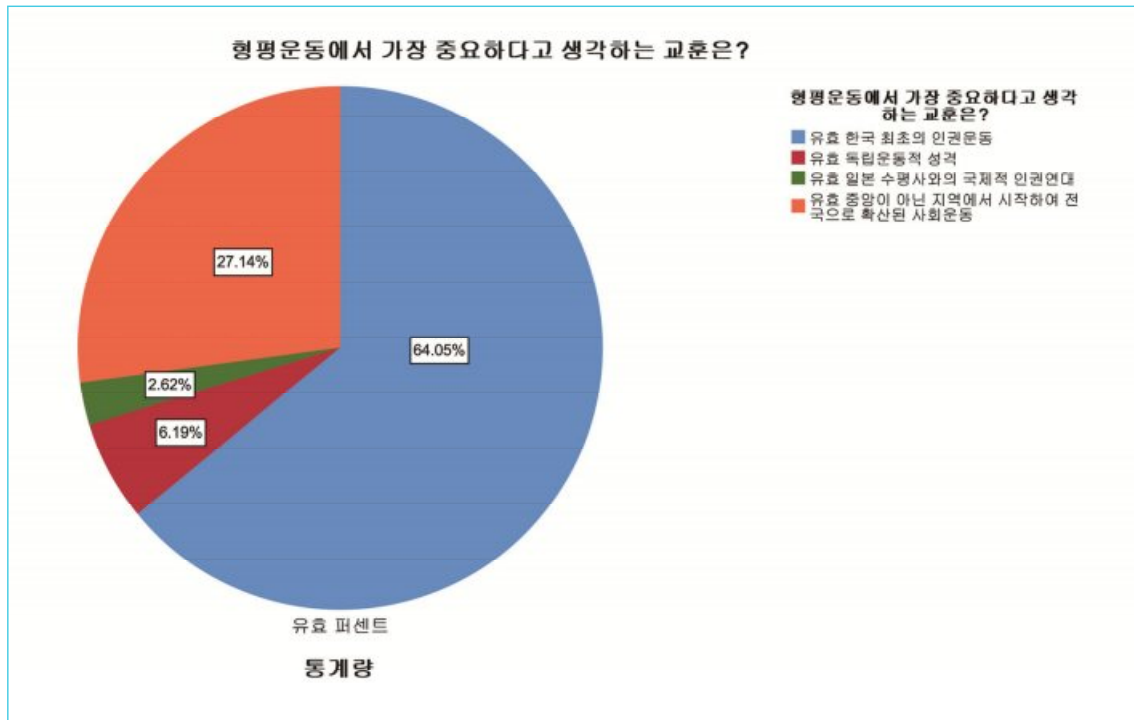
구 분		유효 퍼센트
전체 n = 492		100
성별	남자	4.48
	여자	4.36
	계	4.41
연령	10대	4.18
	20대	3.94
	30대	4.56
	40대	4.42
	50대	4.59
	60대	4.63
	계	4.41
학력	초재	4.67
	초졸	4.13
	중졸	4.07
	고졸	3.91
	대재	3.91
	대졸	4.51
	석사	4.69
	박사	4.85
	계	4.41
직업	농축산업	4.60
	자영업	4.17
	회사원	4.37
	교육자	4.64
	공무원	4.46
	언론인	5.00
	학생	4.16
	활동가	4.80
	종교인	5.00
	주부	4.31
	은퇴	5.00
	기타	4.75
지역	계	4.42
	진주	4.64
	중부(창원, 함안, 의령, 창녕)	4.34
	서부(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4.27
	동부(김해, 양산, 밀양)	4.40
	남부(통영, 사천, 고성, 거제)	4.19
	기타(부산)	3.78
	계	4.41

표 9 형평운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훈

(단위: %)

구분		비율	한국 최초의 인권운동	독립 운동적 성격	일본 수평사와의 국제적 인권연대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사회운동
전체 n = 420						
성별	남자	100	63.4	4.4	2.0	30.2
	여자	100	64.7	7.9	3.3	24.2
연령	10대	100	59.6	12.4	4.5	23.6
	20대	100	84.6	0.0	0.0	15.4
	30대	100	71.7	6.5	2.2	19.6
	40대	100	64.3	3.6	2.4	29.8
	50대	100	61.3	4.7	2.7	31.3
	60대	100	60.0	8.0	0.0	32.0
학력	초재	100	58.8	5.9	11.8	23.5
	초졸	100	28.6	14.3	0.0	57.1
	중졸	100	65.0	13.3	3.3	18.3
	고졸	100	63.6	13.6	0.0	22.7
	대재	100	80.0	0.0	0.0	20.0
	대졸	100	64.7	5.8	2.6	26.8
	석사	100	63.9	2.1	2.1	32.0
	박사	100	58.3	0.0	0.0	41.7
직업	농축산업	100	60.0	0.0	0.0	40.0
	자영업	100	44.4	14.8	3.7	37.0
	회사원	100	66.1	7.1	0.0	26.8
	교육자	100	66.9	2.1	2.1	28.9
	공무원	100	69.0	7.1	0.0	23.8
	언론인	100	100.0	0.0	0.0	0.0
	학생	100	62.3	10.4	3.8	23.6
	활동가	100	78.6	0.0	0.0	21.4
	종교인	100	0.0	0.0	50.0	50.0
	주부	100	58.3	8.3	8.3	25.0
	은퇴	100	50.0	0.0	0.0	50.0
	기타	100	62.5	0.0	12.5	25.0
지역	진주	100	65.3	2.3	1.7	30.7
	중부	100	66.7	6.3	1.6	25.4
	서부	100	59.1	11.4	3.4	26.1
	동부	100	65.9	12.2	4.9	17.1
	남부	100	66.7	4.2	2.1	27.1
	부산	100	25.0	25.0	25.0	25.0

도표 8 형평운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훈 빈도



- 집단 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형평운동이 인권운동이라는 측면(64.05%)과 진주지역이 그 발상지라는 점(27.14%)이 중요한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0 경남정신에 대한 선호정도 10점 척도 평균 비교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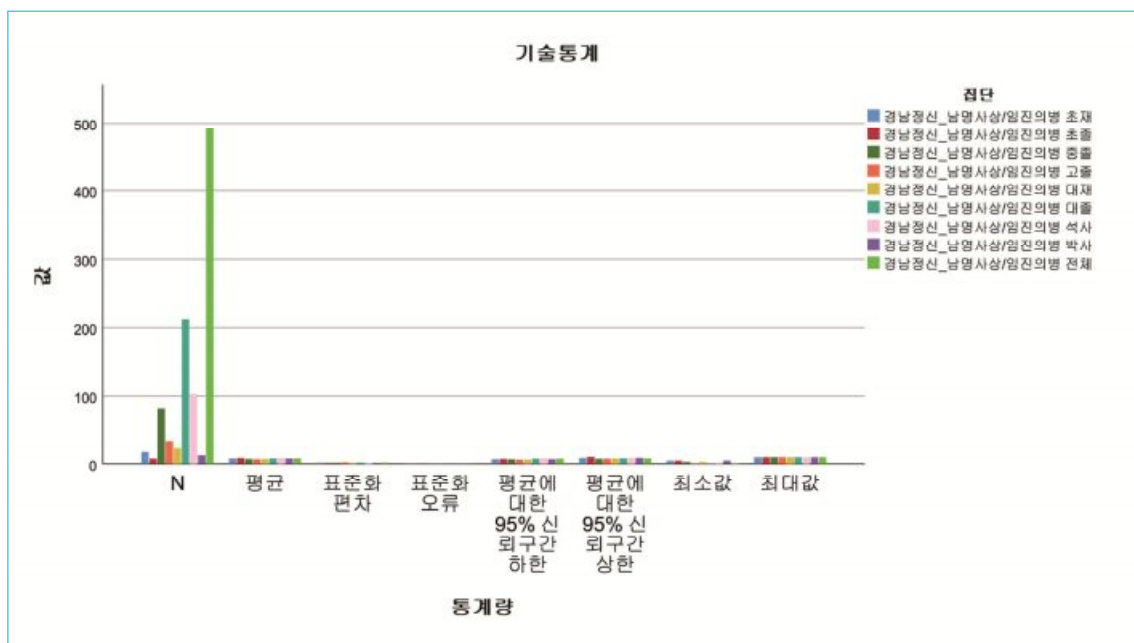
구분									
전체 n = 492		남명사상 /임진의병	진주 농민항쟁	한말 의병운동	3.1 운동	형평 운동	3.15 의거	부마 항쟁	6월 민주항쟁
성별	남자	8.14	8.37	8.17	8.66	8.74	8.37	8.40	8.49
	여자	8.08	8.56	8.25	8.95	8.57	8.48	8.48	8.58
연령	10대	7.63	8.15	7.83	9.34	8.30	8.35	8.01	8.58
	20대	7.39	8.17	7.03	8.36	8.14	8.19	8.58	8.72
	30대	8.00	8.79	8.54	8.92	9.13	8.90	9.00	8.63
	40대	8.28	8.62	8.46	8.79	8.78	8.60	8.68	8.47
	50대	8.43	8.58	8.43	8.54	8.76	8.33	8.49	8.57
	60대	8.70	8.48	8.52	8.74	8.85	8.33	7.96	8.00
학력	초재	8.17	8.61	8.17	9.50	9.50	8.28	8.00	8.78
	초졸	8.88	8.75	8.88	9.13	8.50	8.25	8.75	9.00
	중졸	7.43	8.07	7.67	9.33	7.99	8.41	7.94	8.52
	고졸	7.06	7.36	7.39	8.33	7.85	7.64	7.39	7.39
	대재	7.35	8.22	7.30	8.22	8.04	8.09	8.70	8.74
	대졸	8.25	8.61	8.45	8.72	8.83	8.58	8.63	8.55
	석사	8.80	8.88	8.59	8.82	9.06	8.54	8.77	8.81
	박사	8.15	8.31	8.08	8.15	8.69	8.08	8.54	8.31
직업	농축산업	8.00	9.00	8.00	8.80	8.40	7.40	7.80	8.40
	자영업	7.58	7.75	7.97	8.08	8.00	7.64	7.64	7.53
	회사원	8.31	8.52	8.30	8.76	8.70	8.42	8.52	8.28
	교육자	8.28	8.68	8.42	8.79	8.95	8.73	8.82	8.77
	공무원	8.13	8.17	8.28	8.57	8.67	8.39	8.63	8.52
	언론인	10.00	9.50	7.00	7.00	10.00	10.00	9.00	8.50
	학생	7.65	8.22	7.78	9.14	8.30	8.29	8.10	8.58
	활동가	9.07	9.40	8.67	8.60	9.13	8.60	8.67	9.07
	종교인	9.50	9.50	6.00	9.00	10.00	6.00	6.00	9.50
	주부	8.81	8.94	9.13	9.31	8.81	9.06	9.00	8.88
	은퇴	8.75	9.75	9.50	9.75	9.50	9.25	9.00	9.00
	기타	9.50	9.75	9.75	8.38	9.75	8.38	8.50	8.38
지역	진주	8.56	8.76	8.42	8.60	9.19	8.30	8.45	8.48
	중부	8.19	8.31	8.24	8.59	8.57	8.62	8.54	8.46
	서부	7.76	8.33	8.07	9.15	8.39	8.38	8.32	8.56
	동부	8.02	8.28	8.02	9.00	8.18	8.88	8.70	8.80
	남부	7.44	8.13	8.02	8.97	8.14	8.38	8.31	8.50
	부산	7.56	8.89	7.78	8.78	7.56	8.00	8.33	8.89

- 진주/경남정신 중 남명사상/임진의병과 형평운동 두 항목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각각 0.001, 0.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이 두 가지 항목의 지역별 평균점 차이는 아래 도표 9, 10과 같이 진부>중부>서부>동부>남부 순으로 나타남
- 진주지역이 특히 이 두 가지 항목을 진주/경남정신의 전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도표 9 진주/경남정신에서 형평운동이 차지하는 중요도(10점척도 평균점), 지역별 비교



도표 10 진주/경남정신에서 남명사상/임진의병이 차지하는 중요도(10점척도 평균점), 지역별 비교



마.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의

- 형평운동이 근대적 인권운동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차별 문제는 무엇인지’ 설문하였음
-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 혹은 접근 방식을 설문하였음
-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생각하는 순서는 장애(22.6%), 학력(20.7%), 성별(17.3%), 국적/인종(11.8%) 순으로 나타남

도표 11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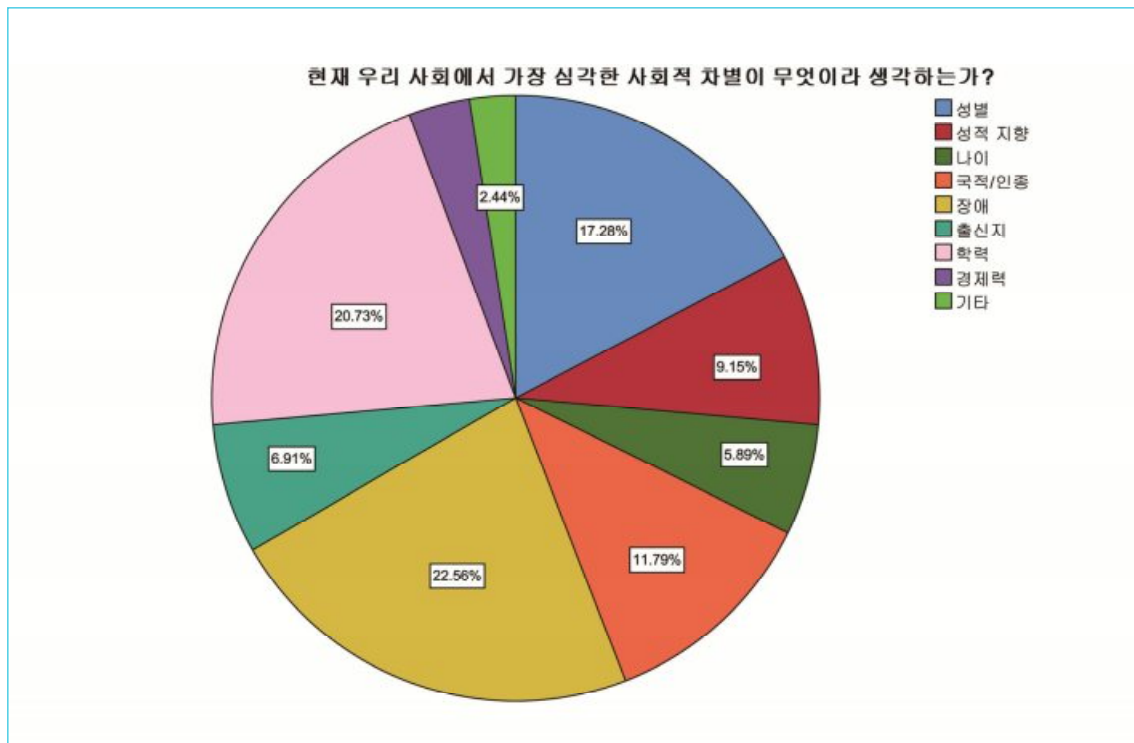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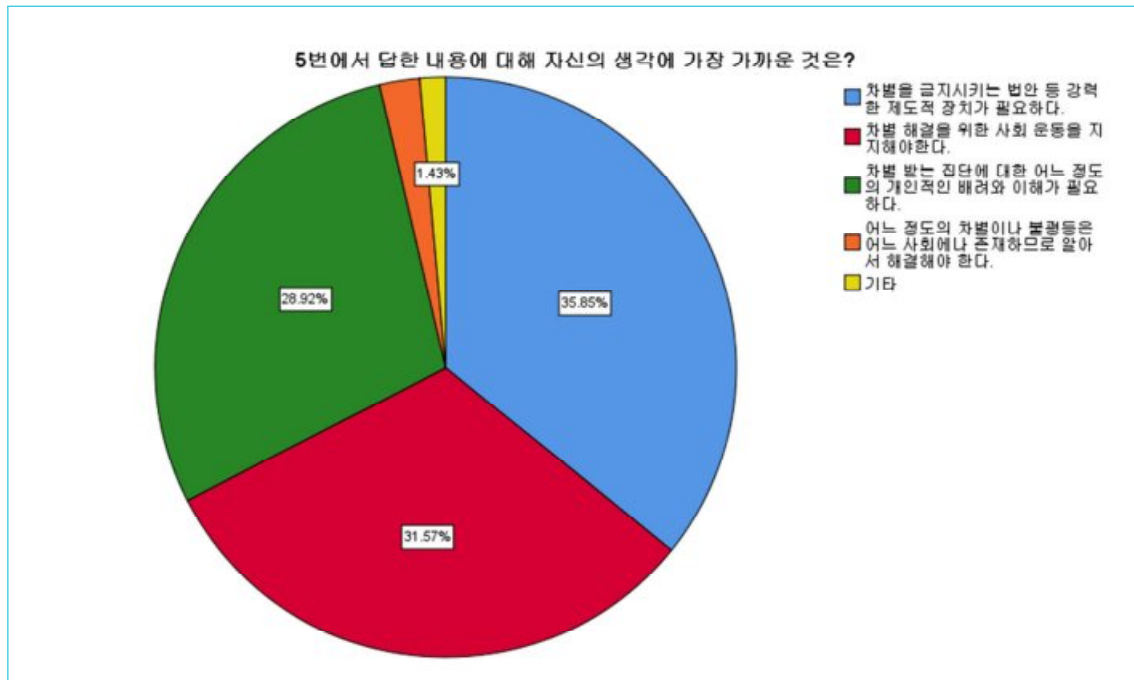


표 11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차별은 무엇인가?

(단위: %)

	빈 도	유효 퍼센트
성 별	85	17.3
성적 지향	45	9.1
나 이	29	5.9
국적/인종	58	11.8
장 애	111	22.6
출 신 지	34	6.9
학 력	102	20.7
경 제 력	16	3.3
기 타	12	2.4
전 체	491	100

도표 12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은?



- 도표 12, 표 12에서 각 항목은 각각 제도적 접근, 사회적 실천/참여, 개인적 배려, 차별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대표될 수 있음
- 사회적 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 혹은 접근 방식 선호도는 제도적 접근(35.85%), 사회운동에 대한 지지(31.57%), 개인적 배려(28.92%) 순으로 나타남

바. 형평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인식 현황과 대책

표 12 형평운동을 접할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단위: %)

	빈 도	유효 퍼센트
연구의 부족	25	5.1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부족	60	12.2
강의나 체험, 프로그램 부족	84	17.1
유적지 관리 소홀, 안내표지판 미흡 등	46	9.3
시민/지자체의 무관심	266	54.1
홍보 부족	4	0.8
기 타	2	0.4
전 체	487	99.0

- 경남권 주민들이 형평운동에 대한 가장 큰 아쉬움은 시민/지자체의 무관심(54.1%) > 강의나 체험 프로그램의 부족(17.1%) > 문헌자료의 부족(12.2%) > 유적지 관리 소홀 등(9.3%) > 연구의 부족

(5.1%)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무관심을 바탕으로 강의, 체험 프로그램 등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연구 및 문헌자료의 부족도 지적되었음

표 13 형평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단위: %)

	빈 도	유효 퍼센트
학교교육과정으로의 도입	196	39.8
홍보자료 개발	92	18.7
유적지 정비	20	4.1
형평운동기념관 건립	68	13.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	4.1
형평 답사프로그램 개발, 보급	80	16.3
연구인력 확보	15	3.0
기 타	1	0.2
전 체	492	100.0

- 형평운동을 알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사업은 학교교육과정 도입(39.8%) > 홍보자료 개발(18.7%) > 형평 답사프로그램 개발 보급(16.3%) > 형평기념관 건립(13.8%) 순으로 나타남

3. 주목할 만한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 진주/경남정신에 대한 경남지역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진주, 중부권역에서 형평운동과 남명사상/임진왜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설문조사에서는 형평운동을 보편적 인권운동임과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작한 운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오늘날 수도권으로의 편중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평운동이 현재의 경남 주민들에게 지역적 동질감 내지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조심스럽게 부여할 수 있음
- 형평운동을 접할 때 경남권 주민들이 가장 미흡하다고 느끼는 점과 형평운동을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향후, 기념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본 조사에 따르면 지역정신의 핵심 가치로 형평운동과 남명사상은 권역별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록 현 시점에서 지자체의 관리 소홀 및 관련사업 미비가 강하게 지적받고 있지만 동시에 학교 교육과정으로의 도입, 유적지 정비 등 기념시설 확보, 답사나 강연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의 도입

등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보완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신뢰감 형성 및 지역정신의 형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본 설문지의 응답자들은 형평운동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시작한 보편적 인권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념사업의 설계과정에서 현대적인 인권운동의 가치를 담아낸다면, 지방소멸의 시대에 형평운동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본 조사에서는 가장 큰 차별로 장애(22.6%), 학력(20.7%), 성별(17.3%), 국적/인종(11.8%)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기념사업의 설계에 잘 반영하면 진주-경남-전국으로 보편적 인권의식이 확산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본 연구로 보강될 형평운동 기념사업으로 현재의 차별 문제에 대한 인권의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선호하는 해결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를 중심으로 기념사업의 보완·발전이 가능할 것임

IV. 형평정신의 현재화 방안

1. 형평운동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위한 제언

가. 형평사원의 후손 찾기, 자료 수집

- 강상호 후손: 강○○, 강상호의 장남, 현재 대구시 거주, 강○○ 씨가 기록한 회고록 『은총의 여정』이 남아 있음. 구술자료를 채록하기 위해 인터뷰 실시, 녹화 및 기록화



▲ 강상호 후손과의 인터뷰

- 신현수 후손: 손자 신○○, 2022년 사망, 다른 후손을 수소문해야 함.
- 천석구 후손: 천○○, 증손녀, 구술자료 채록 위해 인터뷰 실시, 녹화 및 기록화
- 장지필 후손: 장○○, 100주년 기념 다큐 제작팀에서 후손 찾기에 성공
 - ※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다큐 “백정 인권운동가, 장지필”의 성과
 - 장지필의 생몰연대 확인
 - 장지필의 후손과의 만남
 - 장지필의 해방이후 행적 발견
 - 메이지대학 입학 및 퇴학 시기 확인 가능성

나. 형평사원의 인터뷰 및 간담회 실시

- 장지필 후손과의 만남
 - 장소: 충청남도 ○○시 일원
 - 일시: 2023.11.12.(일), 10시~~
 - 참석자: 신○○, 강○○, 김○○, 장○○



▲ 장지필 후손과의 만남

다.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및 답사

- 진주를 비롯한 형평운동 관련 유적지와 인물이 활동했던 장소 조사
- 형평지사와 분사가 설치된 곳, 지역별 형평운동 지도자의 활동 파악
- 반 형평운동이 일어난 지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 수평사 박물관, 부락해방동맹연합회 방문은 필수적임.

2. 형평투어 코스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언

가. 진주를 비롯한 전국의 형평운동 관련 유적지 보존 실태 조사

■ 진주지역

- 형평운동가 강상호 생가, 봉곡동 집터, 비봉동 형평사 본부 건물 확인 필요
- 형평운동가 신현수 관련 유적: 한약방터 확인, 묘소 관리, 송공비 이전 등
- 형평운동가 천석구 관련 유적: 천석구 선생의 생몰연대·행적·활동에 관한 연구, 화산상회 터, 진주 최초의 택시회사 등

■ 남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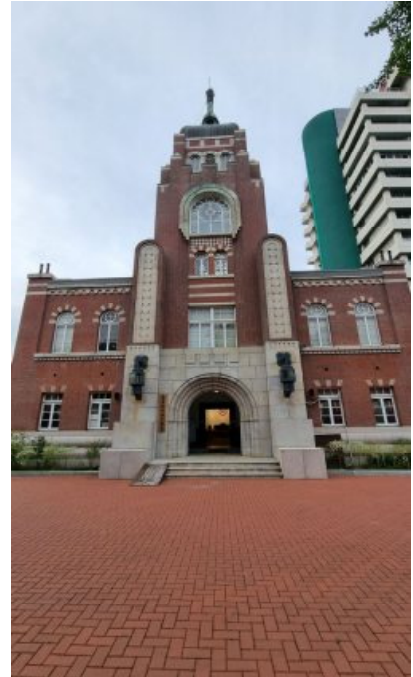
- 강상호와 남원 사회운동가의 교류, 형평 남원 분사 창립 및 활동
- 강신호 화백의 최초 춘향영정 제작 가능성 확인
- 강상호와 인촌 김성수와의 교류: 남원 광한루에서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음.



▲ 광한루에서 만난 강상호와 김성수

■ 서울지역

- 천도교중앙대교당: 대부분의 전국대회를 천도교기념관에서 개최함, 형평운동의 이념적 뿌리가 동학에서 출발.
- 서울 형평사 본부 터: 서울 형평사 총본부는 총 6번 옮겨 다님. 정확한 위치 고증과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건물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 현재 위치가 파악된 인사동 본부 터에만 자그마한 표지판이 설치됨. 진주시와 서울시의 협력이 필요함.



▲ 천도교중앙대교당

나. 유적지 정비 방안 탐색: 안내판 수정 보완, 스토리텔링 개발

■ 신현수 묘소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 신현수 선생의 묘소 위치는 일반시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묘소는 진주시 망경동 갈릴리 교회 샛길을 따라 금선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과수원 방면으로 50여 미터 들어간 곳에 위치.
- 안내판 없이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내판 설치가 꼭 필요함.



▲ 신현수 묘소 위치, 출처: 단디뉴스

■ 신현수 송공비 망경초등학교로의 이전 추진



▲ 총림사 입구에 방치된 신현수 공공비



▲ 2005년 새로 조성된
신현수 선생 송공비

■ 신현수 송공비 설립 및 이전 추이

- 1932년 당시 천전리(川前里, 현재 망경동 일대) 사람들이 진주 형평 운동의 주역인 신현수 선생의 공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섭천못 주변에 건립
- 1969년 못 근처에 망경초등학교가 개교
- 이어 1974년에 섭천 못을 매립해 망경초등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비석은 학교 근처 개인 집 앞으로 옮겨짐.



▲ 1969년 촬영한 망경초등학교 모습, 운동장 앞에 섭천 못이 그대로 남아있다.

- 이후 주택가 하수도 공사로 또 한 차례 이전을 하면서 지금의 총림사 입구로 옮겨짐

- 이에 진주문화사랑모임은 2005년 형평운동의 주역인 신현수 선생의 교육장려는 후세에 전할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원래의 자리인 망경초등학교 운동장에 이전하고자 했으나, 학교 사정 등으로 인해 무산됨.
- 2023년 6월 진주시의회 형평역사연구회의 형평답사 실시



▲ 진주시의회 형평역사연구회 회원들의 신현수 묘소 답사

■ 형평운동기념탑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 현재 경남문화예술회관 근처에 있는 형평운동기념탑은 작은 교통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 형평운동기념탑을 알려주는 교통표지판

- 이곳은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많은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지만, 형평운동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게 됨.
- 형평운동기념탑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문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석조 재질에 각석한 안내문으로 가독성이 떨어짐



▲ 형평운동기념탑 안내문, 형평운동기념탑 전체 조형물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안내문의 존재를 잘 모르고, 돌에 글자를 새겨 가독성이 떨어짐

- 형평운동기념탑 주변에 가독성이 뛰어난 안내판 설치가 요구됨.

다. 이미지 자료 제작, 아카이빙(archiving)

■ 형평관련 이미지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 형평운동 관련 이미지: 정기대회 포스터, 로고, 형평사 주지, 잡지 『정진』 표지, 형평운동가 사진, 그림, 유적지 사진, 형평운동을 주제로 한 드라마, 영화, 다큐 영상, 형평ucc공모전 작품, 기념품, 인쇄물 등 다양한 자료들을 이미지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음

■ 형평운동 사료집 번역사업

- 부락해방·인권연구소 형평사사료연구회, 조선형평운동 사료집, 해방출판사, 2016
- 부락해방·인권연구소 형평사사료연구회, 조선형평운동 사료집, 속, 해방출판사, 2021



▲ 조선형평운동 사료집(2016)



▲조선형평운동 사료집·속(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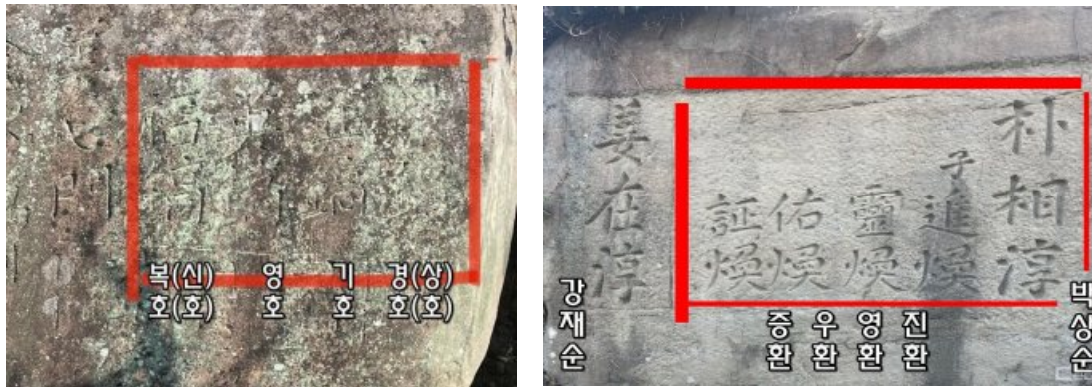
- 필요성: 지금까지 형평운동 관련 자료는 대부분 신문자료(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국한됨. 조선총독부 경찰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등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해 집대성함. 누구나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작업이 필요함.
- 사료적 가치: 형평사 포스터, 형평사 소식지인 ‘뉴스’, 형평사 전국대회 회의록, 참가자 명단 등 처음 밝혀진 자료가 많아 형평운동 연구의 새 지평을 기대할 수 있음.
- 소요예산: 약 3,000만원
- 소요기간: 약 3년 정도
- 형평운동 사료집 번역사업팀 구성: 형평역사팀, 일본어전공자, 역사연구자 등 5~10명으로 번역사업팀 구성

라. 다양한 탐방 코스 및 안내자료 개발

- 다양한 형평답사 코스 개발
 - 시간별로 반나절 코스, 1일 코스, 1박 2일 코스 등
 - 이동 수단별로 도보 코스, 승용차 이용 코스, 버스 이용 코스 등
- 남성당 한약방 형평투어 코스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평생을 나눔과 봉사, 형평의 삶을 살았고, 이 시대 진정한 ‘어른’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장하 선생의 뜻을 기림
 - 김장하 선생의 삶을 다룬 책 출간, 다큐와 영화 제작에 힘입어 진주를 찾는 외지인이 늘어남.
- 최근 발견된 박진환, 강상호 일가 각석도 형평투어 코스에 추가



▲ 강상호·박진환 일가의 이름을 새긴 각석 전경(출처: 단디뉴스)



▲ 강상호, 박진환 선생 일가 이름을 새긴 각석, 출처: 단디뉴스

- 경남 진주시 옥봉동에 위치한 옥봉고분군 아래 벽면
 - 강재순의 아들 4명의 이름이 모두 음각되어 있음
 - 벽면에는 경호(강상호의 본명), 기호, 영호, 복호(강신호의 아명)
 - 강신호가 1904년생이기 때문에 음각된 시기는 적어도 1904년 이후로 추정됨
 - 둘째 강기호는 젊은 나이에 요절함, 셋째 강영호는 일본 유학 중 색동화를 조직한 소년운동가, 넷째 강신호는 경남 최초의 서양화가로 이름을 떨쳤으나 27세의 젊은 나이에 남강에서 익사함.
 - 박진환 선생은 구한말 전북 무주, 영동, 추풍령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함.
 - 3.1운동 때 진주에서 김재화, 강달영 등과 만세시위를 주도한 인물
 - 1927년 신간회 진주지회 설립에 참여
 - 1980년 건국포장 추서
 - 유족의 증언에 의하면 강상호 선생과 박진환 선생이 친밀한 사이, 박진환 선생도 형평운동에 일조했다고 증언
 - 강영호 선생과 박진환 선생은 한국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으로 몰려 희생됨
- 강상호 선생이 만년의 삶을 살았던 일반성면 코스 개발
- 일반성면 유적: 남산리/창촌 거주 집터, 평화당 약방, 형평사원 박○○이 반성장터에서 운영했던 정육점 (타지로 이사, 지금은 가내수공업) 터 찾기 등



▲ 진주시 봉곡동에서 일반성면 남산마을로 이사하여 거주한 강상호의 집터



▲ 형평사원들이 마련해 준 일반성면 창촌마을 강상호의 집터

- 형평 문화원형으로서의 강상호, 형평운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강상호 선생의 만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유적임에도 표지판 하나 없는 실정임.
- 강상호 선생의 만년에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일반성면 창촌에서 평화당 약방을 경영하던 김기탁(金基鐸) 선생이 무료로 약을 대어주고, 주사도 놓아 줌.



▲ 평화당 약방 터(일반성면 창촌리)

마. 형평·인권 투어 코스 개발안

- 형평·인권 투어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운영함
- 형평운동의 발상지 진주, 형평운동의 사상적 뿌리인 동학농민운동의 성지 정읍, 형평사 본부가 진주에서 서울로 이전한 이후 형평사 총본부의 흔적을 찾아가는 코스임
- 정읍, 서울지역은 형평운동 관련 유적뿐만 아니라 인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장소를 포함함.
- 진주-정읍-서울 코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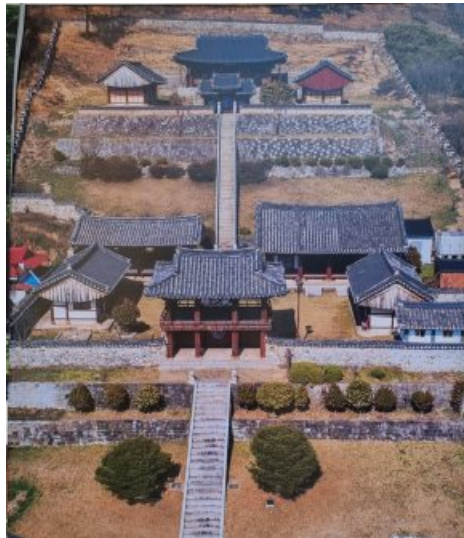
■ 진주지역

🔍 코스

진주향교 → 진주교회(구 옥봉리 교회) → 의곡사 → YMCA회관(구 진주청년회관) → 구 진주극장 표지석 → 신현수 선생 공덕비(망경산 봉수대) → 신현수 선생 묘소 → 강상호 선생 묘소 → 형평운동기념탑

📌 코스별 주제

📍 진주향교



• 향교와 백정(형평운동)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길상구 할아버지가 쇠고기를 쳐다 주고 향교 문밖 돌층계를 얼추 다 내려왔을 때, 마침 향교를 향하여 올라오는 젊은 양반과 시비가 붙어 곤장을 맞았다. ... 양반 앞에서 성씨를 말한 것도 문제였거니와 자식의 이름자에 인(仁)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동주의 소설, 『백정』

- 향교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방 공립학교, 지배이념인 유교 교육뿐 아니라 제사기능을 매우 중요시함.
- 향교에서 지내는 제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봄, 가을로 지내는 석전대제(釋奠大祭)임.
- 원래 석전은 문묘, 곧 성균관의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과 선현(先賢)들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 모든 유교적 제사 의식의 전범이며, 가장 규모가 큰 제사임. 이 때문에 석전을 가장 큰 제사라는 의미로 석전대제라고 부르기도 함.
- 석전대제는 매년 봄(음력 2월)과 가을(음력 8월) 상정일(上丁日)에 성균관 대성전에서 공부자(孔夫子)를 비롯한 4성(四聖)과 공자의 10대 제자를 뜻하는 공문 10철(孔門十哲), 송조 6현(宋朝六賢),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물인 동방 18현에게 제향을 드리고 있음. 지방의 향교에서도 공부자를 비롯한 4성과 송조 4현,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물 18현에게 같은 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음.
- 이런 제사에 많은 양의 고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백정들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된 성균관이 나 향교 주변에 모여 살게 됨.

• 백정의 기원

- 유목민족설: 조선시대에 이르러 화척(유기제조)과 재인(도살, 피물)을 백정이라 지칭.
- 정치적 열패자설: 삼국시대 이래 적국의 포로들을 천업에 종사케 함, 혹은 고려의 유민으로 조선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민화되었다는 주장.
- 특수범인 처우설: 특수범죄인을 보통인이 기피하는 도살 등 천업에 종사시킨 것에 기인한다는 설.
 - ➔ 원래 백정(白丁)이란 고려시대 신역(군역과 부역)이 부과되지 않은 남자라는 뜻으로 일반 농민을 뜻함. 조선의 백정과는 전혀 다름.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 봐서 유목민족설이 정설에 가까움.

• 백정(白丁)은 누구인가?

백정의 백(白)은 없다는 뜻으로 고려시대 신역(身役)이 부과되지 않던 일반 농민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조선시대에는 가축을 잡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변화되었다.

- 재설꾼: 짐승을 잡고 고기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 도한(屠漢)이나 칼잡이로 불림
 - 갓바치: 수공업으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
 - 유기장: 들판에 있는 고리버들로 키나 바구니 같은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들
- 💡 임꺽정 집단은 유기장이었음.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 이북지방에서 대나무 대신 고리버들을 많이 사용함.

• 백정의 집단 거주지

- 백정들은 성안에 사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일반인들과 떨어져 거주함.
- 진주의 백정들은 개천이 흐르는 진주성 서장대 바깥 아래 나불천과 향교가 있는 옥봉 마을, 그리고 섭천 일대에 집단 거주하였음.

• 소설 ‘일월’에 묘사된 백정의 삶

- 출생 시에는 인줄도 고추와 숯과 술가지 외에 소꼬리털을 단다.
- 혼인 때는 소를 그린 화상 앞에서 대례를 지낸다.
- 임종시에는 소 울음을 운다.
- 죽은 뒤에는 소꼬리털로 귀와 코를 막고, 입관할 때도 관 밑에 소털을 깔고, 시체 위에는 소발톱을 엮는다
- 의관에 관해서는저고리에 동정을 시쳐선 안되고 고름 대신에 실단추를 달아야 했다. 신발도 맨발이거나 검정 버선에 짚신을 신어야만 했다.
- 머리는 삭발을 해야 하고 수염도 길러서는 안됐다.
- 백정의 무덤에는 때를 입히지 않았다.

 진주교회



• 옥봉리 교회의 동석예배 거부사건

- 진주에 개신교가 처음 전파된 것은 1905년. 호주 장로회 소속 의료 선교사 커를(Dr. Hugh Currell, 거열휴) 목사가 옥봉리 교회 세움. 진주 최초의 서구식 의료 기관인 배돈병원의 뿌리 제공, 1907년 안동학교, 사립 정숙여학교 세움
- 1909년 라이얼(D. M. Lyall, 나대벽) 목사 부임. 백정 신도들이 따로 예배보는 것을 보고 동석예배 시도함(1909년 5월 9일)
- 15명의 백정 신도들이 동석예배 시도하자, 일반 신도들의 반발하며 라이얼을 따르던 30여 명만 남고 200여 명의 신도들은 퇴장.

- 5월 16일 거부한 사람들이 따로 예배를 봄.
- 7월 22일 켈리, 스콜스 두 여성 선교사들의 중재와 설득으로 회합을 열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됨.
- 7월 25일 백정 신자들은 본래 예배소로 돌아가고, 나갔던 비백정 교인들이 돌아와서 예배를 보게 됨
- 7월 29일 비백정 교인들이 다시 전체 회의를 열어 교회를 떠나준 백정 교우들의 호의에 대해 고마움을 가지고 백정 교우들과 함께 예배보기로 합의
- 8월 1일 백정 신자들과 비백정 교인들의 동석예배 실현

의곡사



• 농청 대표자 회의, 반형평 운동의 거점

농청(農廳)

농청은 두레의 촌락 집회소였다. 두레는 원래 원시 시대의 촌락 집회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유 사무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농청, 공청, 동사, 공회당 등이라 불렀다. 따라서 농청은 두레꾼들의 공동 집회소이자 회의 장소였으며, 농기구와 농악기 등을 보관하는 공동 창고이자 공동의 휴식 장소였다. 보통의 경우 농청은 하층 농민과 머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200명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 창립 축하식 여흥을 위해 기생들에게 공연을 부탁했는데, 진주기생조합이 반대함.
대구 백정야유회 사건 때문으로 보여짐.

- 축하공연은 일본인 가무단이 대신함
- 5월 24일 중안동 동사무소에 24개 동리의 농청 대표자들의 모임
형평사 반대, 쇠고기 불매 운동 결의

그날 밤 “형평사 공격”, “새백정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라고 쓴 깃발을 들고 진주 시내를 시위. 신현수와 천석구의 상점이나 강상호의 집에 돌을 던지기도 함. 일신고등보통학교터(현 진주고)에 소를 끌어다 놓고 “새백정 나와서 소 잡아라”라고 외침

- 5월 25일 쇠고기 불매운동 본격화, 마을마다 감시조 2명씩 지정, 음식점 점검

- 5월 26일 24개 동리 농청 대표자 70여 명이 의곡사에 다시 모여 다음 5가지 사항 결의함.

1. 형평사에 관계하는 자는 백정과 동일한 대우를 할 것.
2. 쇠고기를 절대 사먹지 않을 것을 동맹할 것.
3. 진주청년회에 형평사와 관계 맺지 못하게 할 것.
4. 노동단체에 형평사와 관계 맺지 못하게 할 것.
5. 형평사를 배척할 것

- 진주노동공제회의 중재로 6월 중순에는 진주의 반형평 운동이 끝남
- 충돌의 배후에는 지주 세력과 보천교 집단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음.

보천교(普天敎)는 강증산의 고제였던 차경석(車京石, 1880~1936)이 증산이 죽은 후 최초로 형성한 교단이다. 차경석은 증산의 사후 처음에는 증산의 제2부인인 고씨(高氏)를 교주로 만들었으나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분립하여 스스로 후천개벽의 문로가 자기에 의하여 열린다고 자부하고 교단을 세워 1921년에는 보화교(普化敎)라는 교명과 '시국(時國)'이라는 국호를 선포했으며 1922년에는 교명을 보천교로 바꾸었다. 또한 보천교는 교화 방식에 60방주(方主)라는 강력한 조직을 갖추어 한때 전국에 걸쳐 신도 수가 60만에 이른 때도 있었다. 당시 그는 정읍(井邑)에서 조선을 중주국으로 하고 정교 양면에서 세계통일의 신정부가 세워질 것이라 선전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정감록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 천자의 자리에 등극하여(등극설), 그 권위를 시현하기도 했으나 일제의 강력한 탄압과 자체 내의 분열 등으로 쇠퇴하였다.

차경석이 죽은 후 보천교에서는 신파·구파의 분열이 일어났다. 차경석의 교의를 신봉하고 그를 보천교의 교조로 받드는 신파와 증산을 교조로 하고 차경석을 교주로 보는 구파는 차경석 생존시부터 세력이 나뉘어 있다가 1954년에 성서간행(聖書刊行)과 교주의 영위본안(靈位奉安)을 둘러싸고 충돌하여 완전히 분리하였다.

- 보천교는 동학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진주의 유력 인사와 형평운동 지도자 중에는 보천교 신자도 있었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있음.

YMCA회관(구 진주청년회관)

• 조선형평사 창립의 메카

- 1923. 4. 24. 약 70여명의 백정, 사회운동가들 형평사 발기회 개최
- 1923. 4. 25. 진주청년회관에서 형평사 창립대회 개최

회원 80여 명 참가, 강상호 임시의장으로 추대, 사회를 맡아봄.

형평사 주지와 사칙 채택 → 계급타파, 모욕적 칭호 폐지, 교육권장, 상호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실력양성론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계열의 이데올로기가 형평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됨.

형평사 창립 기념일은 4월 24일 아니라 25일.(당대에도 1924년 4월 25일을 창립 1주년으로 기념, 형평사 임원 구성과 주지가 정식으로 채택된 날이 25일이기 때문.)

-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사칙 제4조에 ‘사원자격을 백정만이 아닌 모든 조선인’으로 하고 있는 점인데, 형평운동의 전국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이후 운동방향과 조직상의 혼란을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에서 2023년 형평운동 100주년 기획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주청년회관의 위치를 새롭게 비정하여 주목됨.



▲ 진주청년회관의 위치가 ○표시에서 □표시로 새롭게 비정됨

진주좌(구 진주극장)

• 조선형평사 창립 축하식이 열린다

- 5월 13일 각 지방 대표자 100여 명, 일반 내빈 500여 명이 참석.
- 자동차로 진주시내 시위, 선전지 7천여 장 배포→각 지역 행사 때마다 이용.
- 강상호 개회사, 신현수의 취지 설명, 재일 조선인 사회운동 단체인 북성회·평문사·점진사·적기사 등의 축전 및 개인 축전 10여 통 낭독, 강달영 등의 축사

강달영(1887-1942)은 누구인가?

제2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3.1운동으로 18개월 만에 출옥, 1920년대 노동운동을 이끈, 6.10만세운동을 계획 추진, 만세운동 유인물 제작이 발단이 되어 징역 6년형 선고, 복역중 고문으로 정신이상, 1934년 출옥했으나 회복 되지 못함.

- 지사 분사 설립 위해 선전대 편성 파견

- 형평사 창립에 당시 언론사와 사회단체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가 쏟아짐

• **경남 최초의 극장, 진주좌**



▲ 진주좌 복원모형도



▲ 1938년 진주극장의 모습(사진: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 **신현수 공덕비**

• **형평사라는 이름을 지은 신현수**



- 1893년 진주 출생
- 1911년 진주 제1보통학교 졸업
- 1920년 전후 조선일보 진주지국장
- 1923년 형평사 창립 주도
- 1934년 『영남춘추』 창간
- 1945년 진주남중, 진주농고 사친회장
- 1946년 천전초등학교 설립 추진

- 조선일보 지국장, 교육운동가.
- 신현수는 민족해방의 지름길은 민중의 계몽과 국민교육에 있다고 믿고 진주에 유치원과 보통학교를 설립하려 함.
- 백정 속에 부자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기부금 모금을 위해 강상호를 방문, 민족전선의 급선무로 백정계급의 해방이라는 결론하에 결사와 명칭을 생각함.
“우리는 수평보다 한층 의미 깊은, 저울같이 공정하고 평등을 주장한다는 의미로 형평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제안하자 강상호도 찬동함.

• **신현수 선생 묘소**

• **신현수 선생 송공비, 망진산에 자리잡다!**

• **백정과 관련된 진주 속담**

“섭천 소가 웃는다”

✎ **섭천:** 섭천(涉川) 내를 건넌다는 뜻으로 그것이 천(내)이든 못이든 물과 관련된 지명임을 알 수 있음.

- 백정촌? 도축장? 우시장? 쇠(金)?
- 조진다: 백정이 소를 허가 없이 밀도살하는 행위
- 공친다: 백정이 염불하지 않고 도살하는 행위
- 막살여어빠라: ‘막살’ 은 도축장, 그만둔다는 의미로 사용



▲ 1918년 조선총독부에 제작한 진주지도, 섭천 못이 두 군데 표시되어 있음



▲ 현재 지도에 섭천을 표시하면 ○ 한 곳으로 망경동 일대를 말할

📍 강상호 선생 묘소

• 강상호 선생의 삶/약력



- | | |
|----------------|----------------------------|
| • 1887. 6. 3 | 진주시 정촌면 가좌리 출생 |
| • 1907 | 국채보상운동 경남회 결성, 모금활동 |
| • 1910-1920 | 진주시 가좌리 주민 호세(戶稅) 10년간 대납 |
| • 1919.3-11 | 진주 삼일운동 주도, 대구감옥 수감(약 8개월) |
| • 1920. 4 | 동아일보 초대 진주지국장 |
| • 1923. 4 | 형평사 발기총회 임시의장 |
| • 1923. 8 | 진주노동공제회 임원 |
| • 1924. 12 | 도청이전반대운동으로 구속 |
| • 1927. 9 | 신간회 진주지부 간사 |
| • 1946. 1 | 진주 3.1동지회 결성, 초대회장 |
| • 1957. 11. 12 | 별세, ‘축산기업조합장’으로 장례 치름 |
| • 2005. 11. 17 | 대통령 표창 - ‘애국지사’로 추서됨 |

• 형평운동과 강상호에 대한 기억의 문제, 추이

- 의도된 망각(신분의 사라졌어도 백정의 후손임을 숨겨야만 했던)→무지와 무관심의 망각(형평운동, 강상호 선생에 대한 무관심, 묘소위치도 몰랐다)→재생되는 기억(기념사업회 활동, 형평운동기념탑, 묘소 정비 등)→각인해야 할 기억(역사공원, 형평기념관 건립)→실천하는 정신(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권운동으로)

• 강상호 선생의 고난

- 대동사 이후 1936년 부산 출신 이성순 위원장 아래 부위원장으로 선임. 크게 활동하지 않음. 1936년 6월 이후 기록 없음. 50세
- 해방 이후의 행적
 - 3·1운동 동지회 회장으로 활동.
 - 6·25 전쟁시 진주시 인민위원장을 맡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당시 진주시 인민위원장은 김인세로 대검찰청 ‘좌익사건실록’에 기록되어 있음.
 - 좌·우익 모두에게 이용가치가 있는 인물로 특무대나 경찰서에 수차례 연행.
 - ‘국민보도연맹’ 명단에 동생 강영호와 함께 이름이 올랐으나 양심 있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형평 사원들의 도움을 받아 급히 피신, 죽을 고비를 넘김. 그러나 동생 강영호는 스스로 피하지 않아 사망.
- 1957년 사망.
 - 죽산기업조합연합회장으로 장례, 일명 형평장(衡平葬)으로 불림
 - 강상호 선생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 근처인 봉곡광장에서 발인
 - 전국에서 형평사원들이 몰려들어 진주교에서 새버리까지 만장 행렬이 이어져 일대장관을 이룸.
 - * 형평사원 이복수의 추도사
- 진주의 3.1운동 공적으로 2005년 독립유공자로 서훈됨
 - 김장하 선생이 익명으로 강상호 묘지석을 건립, 최근 다큐 ‘어른 김장하’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됨

• 시덕불망비

- 강상호의 어머니 전주이씨가 베푼 나눔에 당시 주민들이 세워 준 공덕비
- 시덕불망비의 현황과 보존 대책
 - 박리현상이 극심하고, 강상호 묘소의 출입 방해하고 있음
 - 탁본이나 비가림시설(보호각)의 설치가 시급함
 - 시덕불망비의 받침(기단)을 새로 제작해야 함.
 - 비석이 지면에 곧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박석이나 자갈돌을 깔고 비석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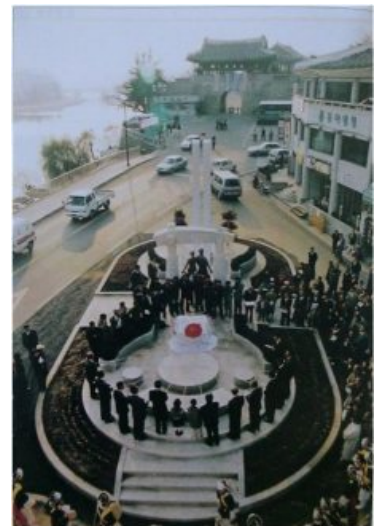


강상호 선생의 어머니 숙부인 이씨는 1917년 홍수로 진주가 물바다가 되자 열두 곡간 문을 열어 백성을 구제했다. 굶주림과 죽음을 면한 주민들이 후에 ‘배운 덕을 잊지 말자’는 비석을 세웠다. 선생의 평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다.

📍 형평운동기념탑

• 형평운동기념탑. 왜 진주성 앞에 세웠을까?

-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의 탄생
1992년 남성당 한약방에서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 구성, 3가지 사업 추진 결의 ① 해방 이후 최초로 형평사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1993년 4월 24일에 거행하기로 함 ② 국제 학술대회 개최 ③ 형평운동 기념탑 건립
- 1996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추어 준공. 글씨 솔피 천갑녕, 조각가 심정수, 기념탑 건립 비용은 1,500여 명의 회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충당.
- 형평운동기념탑의 상징과 의미
‘두 줄기의 나란한 기둥’은 영원히 평등과 자유의 정신을 높이 찬양, 미래는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그녀도, 그니도, 모두 평등의 문을 넘어 평등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세계가 될 것’임을 의미.
- 원래는 창립 축하식이 열린 구 진주극장 자리에 세우려 했지만, 부지가 협소하고 지가가 비싸서 진주성 안(물론 외성이긴 하지만) 옛 진주문화원 옆에 탑을 세워 수백 년 동안 성 안에서 살지 못한 백성들의 혼을 달랠 수 있게 한 것임.
- 진주대첩기념광장(이하 대첩광장)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2017년 12월 10일 ‘임시’라는 단서를 달고 지금의 자리(경남문화예술회관 부근)로 옮김.



• 왜 진주에서 형평운동이 시작되었을까?

- 1920년대 초 진주에는 약 350-400명의 백정들이 거주, 다른 지역의 백정보다 차별이 더 심했다는 증거 없음
- 조선형평사 창립에 관한 몇 가지 설
 - 이학찬 불만설, 수평사 영향설, 사회활동가 조직설 등⇒진주 백정들의 신방해방 투쟁 경험+진주의 선각자들의 합작품

* 백정들의 경험

- 1900년 황성신문 기사에 진주의 백정들이 “관을 쓰게 해 줄 것”, “일반민과 똑같은 의복을 입도록 해달라”는 탄원을 냄.
- 1909년 동석예배 거부 및 실현을 통한 좌절과 희망을 경험
- 1910년의 도수조합 설립 시도와 실패 경험(장지필 등)

• 진주만의 독특한 사회적 조건, 3·1운동 이후 사회 개혁 운동의 활성화 속에서 형평사 창립 가능. 진주의 역사·사회적 조건 속에서 설명되어야 함.

• 수평사 영향설과 국제 인권연대

- 수평사 영향으로 형평사가 창립되었다는 설에 대해 국내연구자들 대부분이 부정함.
- 형평사 창립 당시에는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형평사 명칭이나 주지, 조직, 포스터의 도안, 투쟁 방식 등에서 너무나 유사함.
- 1924년 축전 교환, 1926-7년 수평사 대표 방문 등 양 단체의 국제교류가 있었음
- 1927년 수평사와 형평사 대표 상호 방문 등 두 단체의 교류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일본과 한국, 지배와 피지배를 떠나 국제적 인권 연대와 협력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오사가 인권센터나 수평사 박물관은 우리의 형평공원 조성이나 형평기념관 건립에 중요한 시사를 제공해 줌.

■ 정읍지역

🔍 코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일원 → 보천교 유적 → 원평 집강소 → 익산 삼산병원

📖 코스별 주제

📍 전봉준 장군 고택과 생가

- 사적 제293호, 이평 장내리 조소마을. 이곳은 전봉준 장군이 고부농민봉기가 있기 5~6년 전에 이사와 훈장생활을 하다 농민봉기를 일으킬 때까지 거주하였던 집.
- 서당 한켠 방에는 약방을 차려놓고, 손에는 염주를 들고, 사람들이 약을 지으러 오면 주문을 외우면서 진맥을 하고 약을 지었다고 함.
- 전봉준이 불교를 믿었다는 흔적이 없으니 주문과 염주는 동학의 것으로 추정.
- 약방을 하면서 거사를 위한 자금을 모금했을 것임.(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2014.)
- 고택은 고부농민봉기 때 안핵사(按覈使) 이용태(李容泰)가 불태웠으나 1974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생가는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 마을에 있음. 전봉준은 1855년 12월 3일 이곳에서 서당훈장을 하던 전창혁의 아들로 태어나 13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전해짐. 당시에는 서당, 안채, 사랑채 등이 있었다고 하나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에 모두 소실되었다가 2000년에 현재 모습으로 복원됨.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형평·인권 투어 답사(2023.10.30.~31.)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

📍 황토현 전적지 내 동학농민군 군상(群像) 조형물



▲ 동학농민군 군상, 공모를 통해 2022년에 세운 군상으로 작품명은 ‘불멸, 바람길’이다.

- 동학농민군상은 2022년 6월 25일 설치됨.
- 제작자는 가천대학교 임영선 교수로 작품명은 ‘불멸, 바람길’임.
- 전체적인 작품 배치를 사람 ‘인(人)’자의 형상으로 배치하여 동학의 인본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갓을 벗은 채 들고 가는 전봉준 장군의 모습이 인상적인데, 신분제의 차별을 없애고자 했던 혁명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임.
- 군상(群像) 건립의 의의
 - 친일작가 김경승이 세운 전봉준 동상을 철거함으로써 친일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음. 김경승의 작품으로 남산에 백범 김구 동상, 서울 종묘광장에 월남 이상재 동상, 서울 강북에 4·19혁명기념탑 등이 아직도 남아 있음.
 -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한 개인이 모두 포괄할 수 없다는 점. 전봉준이 위대한 지도라는 위상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사상이나 사건을 어느 한 개인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추론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한 개인으로 영웅적인 행위로만 제한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역사인식이자 역사왜곡으로도 볼 수 있음.
 - 자유롭고 평등한 시대정신에도 부합되는 일. 농민군의 위패를 모신 구민사(救民祠) 상단 정면 중앙 한 가운데에 무명 농민군 위패가 모셔져 있고, 그 제일 왼쪽에 농민군 최고지도자인 전봉준의 위패가, 그리고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읍 집주였던 차치구(車致九, 아들이 보천교를 창시한 차월곡)의 위패가 모셔져 있음. 이는 농민혁명의 중심을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자로 보면 서도 무명 농민군의 위상을 강조한 것. 군상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것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음. 좌측 부조가 1차 봉기를, 우측 부조가 2차 봉기를 상징함.

보천교 유적

〈진주 형평사와 정읍 보천교(普天敎)의 연대관계〉

- 형평 지·분사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가 보천교 신자였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
- 1923년 3월 중순경 학교 설립자금을 지원받고자 정읍으로 출장한 적이 있음.
- 형평사 설립의 핵심 멤버인 신현수·강상호·조우제 등이 정읍 방문.
- 1923년 5월 13일 형평사 창립 축하식에 보천교도인 조우제가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운동비용을 기부함.
- 형평사와 보천교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기사

진주 안의 경남 보천교의 두령으로 該敎의 발전을 위하여 만흔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아일보 지국장 鄭準敎, 全記者 尹炳殷, 吳景杓, 조선일보 지국장 申鉉壽, 晉陽商會主 姜大翼 제씨와 개인으로는 沈斗燮, 姜相鎬, 鄭成鎬, 姜大詰, 金亨權, 千錫九 제씨 외 수인이 금번 전복 정읍에 在한 보천교 중앙 교실 내 교주 차천자께 謁見하고 이어 七星壇下에 기도하고 金拾萬圓을 拜受하여 歸晉 后 眞正院을 건축할 예정으로 再昨 15일 진주를 떠나 정읍으로 향하다. -『개벽』-

- 강상호는 국채보상운동 경남회 조직, 진주 사립일신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 3·1독립만세운동 주도, 경남도청 이전 반대운동, 신간회 간사, 「동아일보」 창간 발기인, 「동아일보」 초대 진주지국장 등을 역임
- 정준교는 진주지역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축석광장(공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
- 신현수는 진주에서 그의 선대가 한약방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일보 진주지국장을 역임, 진주저축계, 진주청년회를 조직하고, 진주기근구제회, 동우사 등에 참여함.
- 윤병은은 『조선민보』 진주지국 기자의 신분을 가진 보천교 신자였음.
- 천석구는 1923년 5월 6일 강대창(姜大昌)·심두섭(沈斗燮)·정성호(鄭成鎬) 등과 함께 ‘보천교소년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던 인물. 천석구는 진주 사람으로 종이와 장판 등의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를 경영하면서, 형평사 창립에 참여할 즈음에는 진주 금주단연회, 진주저축계에 참여했던 사회운동가.
- 진주지역의 저명한 사회운동가들이 보천교 신자가 되었던 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1920년대 초는 3·1독립만세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우리 민족이 구심점을 상실하고 있던 시기
- 보천교의 ‘천자등극설’은 보천교가 독립을 염원하며 암암리에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민족종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
- 형평운동 초기 보천교와 연대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적극 추진했을 것임.(김재영,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의 지역적 전개」, 전남대학교박사논문, 2007 참고).

〈보천교의 민족운동〉

- 보천교는 일제가 ‘유사종교(類似宗教)’라는 굴레를 씌워 일제강점기간 내내 탄압했던 대표적인 민족종교였음.
- 최근 보천교와 보천교계 신종교 관련자 가운데 민족운동 관련 인물 424명이 밝혀졌고, 이 가운데 2021년 현재 155명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보천교가 민족종교였음이 다시 입증되었음.
- 보천교에서 상해임시정부에 나용균(羅容均)을 통해 5만원을 전달함.
- 1922년에는 세계약소민족회의에 참가하는 우리민족 대표들에게 1만원의 여비를 제공함.
- 특기할 만한 사실은 김좌진에게 5만원의 군자금을 제공하여 무장대의 편성을 가능케 했다는 점.
- 보천교에서는 ‘종교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에 직물공장을 비롯, 염색공장, 유리공장, 농기계공장, 갯공장 등을 설치함.
- 이는 일본산 물건을 쓰지 않겠다는 민족의식의 발로이자 자급자족운동에서 비롯된 것임.
- 1922년 8월에 발행된 『개벽(開闢)』지에 필명을 ‘비봉산인(飛鳳山人)’이라는 쓰는 진주 사람이 ‘정읍의 차천자를 방문하고’의 제하에 쓴 글에 차월곡은 순연히 ‘조선산’으로만 된 옷을 입었다고 했음.
- 이를 위해 서양의 염색기술을 도입하여 근대적 염색공업을 권장함.
- 중공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철과 제련소 등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 도로를 ‘정(井)’자 형으로 나누어 뚫고, 도로가에 공장과 상가를 연달아 지어 교인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함.
- 노동의 강도에 따른 이른바 ‘집단생산 차별분배제’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시험하기도함
- 1924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일종의 노동조합인 ‘기산조합(己産組合)’을 설치함.
- 1923년에 일어난 물산장려운동은 차경석의 자급자족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지금도 대흥리에 직물공장이 일부 가동되고 있음.

〈보천교 중앙본소〉

- 보천교 중앙본부는 입암면 접지리 일명 ‘대흥리’ 마을에 있음.
- 현재 교당과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이 남아 있음.
- 1922년에 설립된 중앙본부를 교인들은 ‘호천금궐’ 또는 ‘구(舊) 성전’이라 부름.
- 구 성전 건물 남쪽에 ‘신(新) 성전’이라 부르는 보천교 중앙본부가 1925년부터 조성됨.



▲ 보천교 중앙본부



▲ 1930년대 보천교 본소 사진(일본 동경 학습원대학 우방문고 소장)

- 신 성전 내의 대성전은 1925년 1월 16일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1929년 3월 15일에 준공함.
- 중심 건물이 현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축된 ‘십일전(十一殿)’임.
- 대성전 주변으로는 정화당, 총령원, 총정원, 태화헌, 연진원 등 45동의 건축물과 10여 동의 부속 건축물이 있었으나 1936년 교주인 차월곡 사후에 일제에 의해서 모두 철거됨.
- 구 성전건물은 1936년 철거 당시에 차월곡의 손자 차천수의 소유로 돼 있어 처분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보천교 중앙본부로 쓰이고 있음.

김제분사

- 김제에서는 1923년 5월 20일 백정들의 독자적 조직인 ‘서광회(曙光會)’가 창립되면서 시작.(『동아일보』, 1923년 5월 26일).
- 본사에서 조직을 지사와 분사로 체계화하자 서광회는 5월 28일 김제분사로 이름을 바꿈.
- 김제분사는 형평사 창립 초기인 1923년, 대전에서 열린 전조선형평대표자대회에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하여 소감을 발표하는 등 대외 활동에 주력함.
- 1925년 4월 25일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는 김제노동조합원 정석술과 김제신흥청년회원 진기만의 축사가 있었음.
- 정석술은 1927년 4월 11일에 열린 김제형평사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 지방순회위원으로 선정됨.
- 진기만은 1925년 7월 김제청년회, 무산청년회, 신흥청년회 등 3단체가 김제청년회로 통합되었을 때 집행위원에 선임, 신흥청년회에서 운영하는 노동야학에서는 야학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강사로 활동했던 인물.
- 원영채는 분사장(집행위원장)으로서 유임되었는데, 김제분사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그는 지방의 분사활동을 기반으로 이후 중앙본부로 진출한 인물이었음. 1924년 8월 16일 조선형평사 중앙총본부 임시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정되어 형평사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함.
- 당시 김제에는 청년회, 노동야학, 교육회 정도가 있었을 뿐 특기할만한 단체가 없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김제분사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가진 지역 내의 비중 있는 사회운동 단체로 성장한 것으로 보임.

원평분사

- 1927년 6월 23일 원평분사 설치.
- 원평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용되었던 집강소(執綱所)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음.
- 이 건물은 백정 출신으로 원평에서 크게 돈을 번 ‘동록개(洞鹿介)’가 백정들도 사람 대접받고 사는 사회를 위하여 써달라고 원평접주 김덕명 장군에게 바친 것이라고 함.
- 일설에 해월 최시형에게 주었다는 설도 있고, 전봉준에게 주었다는 설도 있으나 관할구역인 김덕명 접주에게 주었다는 것이 설득력 있음.
- 동록개가 어떻게 해서 큰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당시 백정들의 도축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도축만으로 큰 자산을 모을 수 없었기 때문.
- 이런 미담 때문인지 원평에서는 원주인인 백정 동록개를 ‘하촌아(下村兒)’라는 미칭으로 불렀다고 전해짐.
- 백정은 일반적으로 소의 도살뿐 아니라 피혁제조업에도 종사하였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는 ‘피촌(皮村)’, ‘피촌말’이라 불림.
 -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가곡에서는 성 뒤쪽에 있다 하여 ‘성후(城後)’.

- 김제 봉남면 행촌리에서는 ‘제향촌(祭享村)’
- 고창에서는 ‘하촌(下村)’
- 이 집강소 건물은 일제강점기 금산면사무소로 이용되었고, 원평 천도교당으로도 이용됨. 원평 형평 분사(衡平分社) 창립 당시에는 식당으로도 이용되었고, 2000년대에는 원평택시 사무실로도 사용됨.



▲ 김제 원평 집강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 포스터

익산형평분사

- 1923년 4월 25일 진주에서 형평분사가 창립된 이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이 전북 이리였음.
- 이리에서는 1923년 5월 11일 조성봉·함명중 외 29명의 발기로 ‘동인회(同人會)’가 조직되었으나, 1925년 6월 16일 경성으로부터 출장한 장지필과 타협한 결과, 명칭이나 헌장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익산형평분사’로 이름을 변경.
- 익산형평분사는 그해 12월 다시 ‘이리형평사’로 개칭함.
- 이리 동인회는 형평사의 일원이 되기까지 2년 동안 독자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 기간 동안의 독자적인 활동을 전하는 관련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음.
- 이리 형평분사가 본격적으로 형평운동을 전개하고자 할 무렵, 이리에서는 지역 내 각종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음.
- 1926년 일제는 조선 내에서 인심 악화의 경향이 가장 현저한 지역으로 호남지방을 꼽았고, 그 가운데 전주, 이리, 광주, 송정리 4개소를 지목하고 이곳에 연대를 주둔시킬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음.
- 이리동인회의 조직 구성
 - 5명의 고문과 15명의 이사를 두고 있는 자·분사는 전국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음.
 - 특히 김병수는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인물로, 3·1독립만세운동 당시에는 독립선언문을 이리에 전달하여 민족의 결기를 꾀하는데 선봉이 되었음.

- 그로 인해 1년여의 옥고를 치렀고, 졸업 후인 1922년부터 이리에서 그의 호를 따서 삼산병원을 개업하여 의료활동을 전개함.



▲ 이리 삼산병원(사진 정음역사문화연구소)

- 이리(익산)분사의 활동
 - 1925년 8월 사원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야학을 개설하고, 1928년 4월에는 조합설립을 계획
 - 야학은 사원 자제를 모아 지식향상을 꾀하고, 장래 일반민과 동일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개설함.
 - 조합은 그간 백정들이 수육판매조합과 건피조합이 없는 관계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
 - 1929년 1월 25일에는 역시 이리에서 형평사 간부를 포함한 전국 신간회, 청년연맹 205명이 간담회를 갖고 일제에 보내는 경고문을 작성했으나 그 경고문이 발각됨.

■ 서울지역

🔍 코스

형평사 본부터 → 승동교회 → 천도교기념관 → 성균관, 반촌, 숭보사
→ 국가인권위원회 → 절두산 순교성지

📖 코스별 주제

📍 서울 형평사 본부터

- 서울에서의 형평사 중앙본부 활동은 1924년 4월 15일 혁신회에 의하여 본부가 서울로 이전되면서 시작.
- 형평사 창립 1년 만인 1924년 4월에 본부를 그 출범지인 진주에서 서울로 옮긴 것은 형평운동 상에 있어서 본부의 지역적 이동이라는 외형적인 변화 이상의 변화와 의미를 지니는 것임.
- 서울 본부로 이전 후의 변화
 - 지도 세력 변화: 중부권의 개혁적 지도자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감, 형평운동 확산에 공헌한 진주 이외 지역의 비백정 출신 직업적 사회운동가도 총본부 임원으로 선임됨
 - 활동 방향 재정립: 인권운동에 제한하지 않는 공동체적 성격의 운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원의 인권과 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강조함. 서울 본부의 경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진주 본부 측과의 활동 방향 변화 중에서도 가장 진취적인 면에 해당함
 - 활동의 지리적 확산: 본부가 초기 단계의 지역성을 벗어나 각 지역 지도자들의 연합활동 중심지로서 전국적 대표체제로 바뀜
 - 사회운동계와의 전국적 교류 증대로 연대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폭넓은 인정을 받게 됨

〈서울에서 변경된 형평사 본부 위치〉

변경 시기	주 소	보 충 내 용	자 료
1924.4.15	도림동 144번지	진주에서 이전, 사무소를 매입	시대 1924.4.10 조선 1924.4.16
1924.8.15	인사동 111번지	본부를 이곳으로 이사	시대 1924.10.1
1924.11.23.이후 1925.4.25.현재	관철동 144번지	-	조선 1923.11.23 동아 1925.4.20
1925.4.26.이후 5.6.현재	와룡동 75번지	-	동아 1925.5.8
1926.5.17.이후 8.12.현재	운니동 23번지	4,500원으로 건축	동아 1926.5.17 동아 1926.8.15
1933.5.1	운니동 68의 1번지	4월에 재정난으로 前 회관 매각, 새로 사들이어 이전	동아 1933.5.4
1936.1.11	본사를 대전으로 옮길 것 결정	대동사 대전 임시대회에서 서울 사무실을 팔고 이전기로 함	조선중앙 1936.1.17

- 〈표〉에서와 같이 형평사 본부는 서울에 있는 동안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사무실을 임대·매입 또는 직접 짓기도 하면서 여섯 곳으로 그 위치를 옮겨 다님.
- 형평사 지도자들은 여러 번 본부를 옮겨다니면서도 서울의 중심지를 벗어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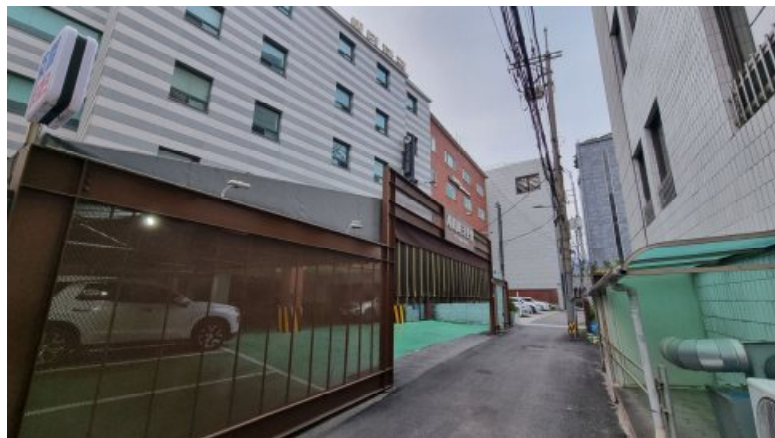
• 형평사 본부 터 1



▲ 서울 형평사 본부 터 표지판

- 이 표지판은 현재 세종문화회관 부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위치하고 있음.
- 진주에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첫 본사터(도림동 144번지)로 보임.
-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은 너무 작아 알아보기 힘들.
- 현재 이 표지판에는 1923.4.25.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진주에서 형평사가 창립한 날이며, 서울 본부로 이전한 시기는 1924년 4월 15일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함.

• 형평사 본부 터 2



▲ 서울 형평사 본부 터 2

- 이곳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89(종로구 운니동 24-1)로 1926년 5월 17일부터 1933년 5월 1일까지 가장 오랫동안 형평사 본부로 사용되었음.
- 현재 호텔이 들어서 있고 작은 표지판 하나 없는 상태임

• 형평사 본부 터 3



▲ 서울 형평사 본부 터 3

- 이곳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2길 35(운니동 68-2)로 1936년 대전으로 본부를 옮길때까지 이용된 형평사 본부임.
- 현재 도심 한 가운데 단아하고 예쁜 한옥 갤러리 공간 35 건물로 이용되고 있음.
- 현재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형평사 본부로 사용되던 건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추정됨.

• 서울 형평사 총본부의 종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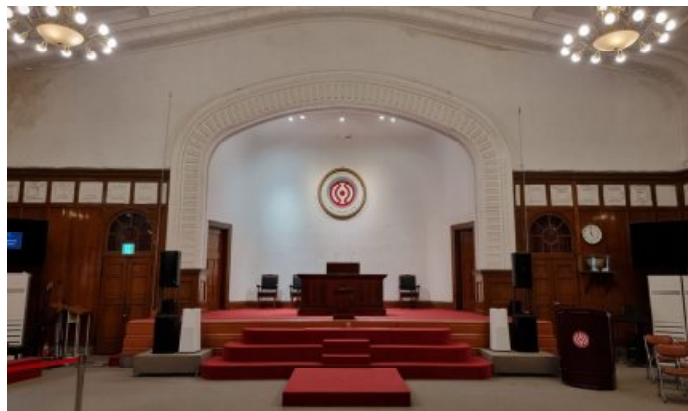
- 1936년 1월 11일 충남 대전에서 개최된 대동사 임시총회에서 서울의 본부회관을 팔아 부채를 정리하고 본부를 대전에 두기로 결정함.
- 약 12년간의 형평사 총본부의 서울 시대가 끝이 남.

천도교중앙대교당

- 대부분의 전국대회를 천도교기념관에서 개최함
- 형평운동의 이념적 뿌리가 동학에서 출발
 - 서울 천도교당에서 열린 형평사 1주년 기념식 광경



▲ 1924년 형평사 1주년 기념식이 열린 천도교기념관 내부 모습



▲ 현재의 천도교중앙대교당 내부 모습

탑골공원

- 조선형평사 총본부 창립 5주년 기념식 광경
 - 1928년 4월 25일 정기대회를 천도교기념관에서 개최
 - 조선형평사 총본부로 개칭
 - 기존 조직을 자유연합제에서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로 개편
 - 신강령을 채택하여 형평사는 인권해방운동에서 민족 및 계급운동으로 전환하려 함.
 - 이 사진은 정기대회 및 5주년 기념식을 천도교기념관에서 개최하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탑골 공원에서 기념 촬영한 것으로 보임.



▲ 형평사 창립 5주년 기념(탑골공원)



▲ 형평사 제6회 전조선 정기대회 포스터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가. 형평운동의 전국화, 대중화, 세계화를 구체적인 실천방안

- 진주시의회 형평운동 연구회 조직 활동
- 형평의 날 기념일 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형평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 역사적 근거: 4월 25일은 형평사 창립 기념일로, 당시에 ‘형평데이’ 혹은 ‘형평의 날’로 기념하고 있었음.

- 관련 법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2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 예시 및 제안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문화체육 관광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형평의 날	4. 25.	문화체육 관광부	형평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형평정신을 현대적으 로 계승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교원 대상 전국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경남교육청, 진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교육청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 경남교육청-형평운동, 광주교육청-5.18민주화운동, 제주교육청-4.3항쟁으로 순회 주관

■ 문화 예술계와 연대: 연극, 무용, 문학, 방송 등 문화 예술계와의 연대와 협력

■ 향후 드라마, 영화 제작 지원

- 일본 부락해방동맹연합회와 지속적 교류 추진: 매년 1~2월 중, 상호 교환 방문 합의, 교류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향후 합의할 예정임.



▲ 부락해방동맹연합회와 형평운동기념사업회 간담회

■ 100년 전 형평사와 수평사 간의 국제적 인권 연대를 계승

- 형평운동 관련 기록을 세계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
 - 형평사와 수평사는 활발히 교류하여 국제 협력의 모범을 보여줌.
 - 이러한 협력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형평사와 수평사가 교류했던 기록은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
- 한국국학진흥원, 대학교수 등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형평운동 관련 주요 자료와 기록을 영문으로 번역작업 필요, 형평사 주지, 사칙, 이복수의 추도문, 개벽 지에 등재된 글, 각종 신문 자료 등

나. 형평운동의 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콘텐츠 제공

- 형평운동을 진주, 경남지역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입
- 형평 지역화 교과서 개발 보급
- 학생, 시민,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 개발 운영
- 형평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해 온 형평가 공모, 형평 실천 UCC공모전 수상작 활용
- 형평 로고 및 엠블럼 제작활용
- 형평운동 관련 영상 수집 및 활용, 뉴스, 다큐, 대담, 강의, 답사, 드라마, 영화 등

다. 진주정신=형평운동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정책

- 형평특화거리 조성: 남성당 한약방-극단 현장 주변 지역을 '형평특화거리'로 조성, 형평운동을 상징하는 색깔(컬러), 디자인을 개발하여 특화거리 상가/건물 간판에 적용, '형평' 후원가게도 모집
- 형평 로고 및 엠블럼 수상작의 활용 범위 확대
- 진주시에서부터 4월 25일을 '형평의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해야 함
- '형평로' 도로명 지정: 강상호 선생의 장례 행렬이 지나간 봉곡광장-새버리길 일부를 형평로로 지정

라. 형평운동 사적지 정비 및 관리 방안

- 진주시와 형평운동기념사업회의 협조 체계(협의체-거버넌스) 구축
- 형평운동 사적지 현황 파악 및 정비, 관리 방안을 위한 상시 시스템 구축
- 학생, 시민 봉사활동과 연계하는 방안, 문화재지킴이 양성 활동
- 강상호 묘소 버스 정류장 신설 요청,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묘소 접근성을 높이고 형평운동 홍보 효과 기대

마. 형평역사공원 및 형평기념관 건립안

- 석류공원(녹지공원)-형평공원(역사공원)-문학공원(시조문학관)을 연결하는 테마공원으로 조성
- 형평역사공원 조성 방안
 - 강상호 묘역 정비, 어머니 시덕불망비 보존 대책, 형평저울, 주지 등 형평운동 상징물 제작, 강상호 흉상 건립, 시민 휴식을 위한 벤치 조성
 - 주변의 석류공원, 문학공원과 함께 세계 유일의 테마공원으로 거듭나게 함
- 형평기념관 건립 방안
 - 형평운동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학생·시민 대상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능
 - 형평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하는 연구소 기능
 - 인종, 국적, 성별, 직업, 지역 등 다양한 인권분야의 전문가 양성 및 인권문제 해결 등 인권센터 기능



▲ 형평역사공원 및 형평기념관 예정부지



▲ 형평역사공원 조성 계획

- 경남도비, 진주시비, LH 등 지역 공기업의 예산 지원과 형평운동기념사업회 등 민간사회단체, 학술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공기업+사회단체) 거버넌스 구성

- 형평운동기념관 건립시 예술회관 근처에 있는 형평탑 이전 가능, 형평운동의 성지로 재탄생 가능
- 형평운동의 역사성, 가치 널리 홍보
- 인권도시 진주의 위상 정립
- 진주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 제고에 기여
-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지역 소재 공기업 간의 성공적인 협치 모델을 제공
- 지역, 한국, 일본, 동아시아, 세계 인권교육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참고 문헌〉

단행본

- 강인수, 『백촌의 소리: 필립 강인수 시와 수상집』, 형평, 1993
-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 『형평운동의 재인식: 형평운동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솔출판사, 1993
- 김중섭, 『형평 운동 연구: 일제 침략기 백정의 사회사』, 민영사, 1994
- 김중섭, 『형평운동』, 지식산업사, 2001
- 천촌진(川村濤), 『말하는 꽃 기생』, 소담출판사, 2002
- 박종성, 『백정과 기생: 조선천민사의 두 얼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3
- 고숙화, 『형평운동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신현규, 『기생, 조선을 사로잡다: 일제 강점기 연예인이 된 기생 이야기』, 어문사, 2010
- 배항섭 외 3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역사공간, 2011
- 이희근, 『백정, 외면당한 역사의 진실』, 늘품플러스, 책발, 2013
- 김중섭, 『평등 사회를 향하여: 한국 형평사와 일본 수평사의 비교』, 지식산업사, 2015
- 부락해방·인권연구소형평사사료연구회, 『조선형평운동사료집』, 해방출판사, 2016
- 조한국, 『호주의 선교사 커를과 그의 동료들』, 한국문화사, 2019
- 김용심, 『백정, 나는 이렇게 본다』, 보리, 2019
- 군산시사편찬위원회, 『군산시사』(상), 2000
- 김중섭, 『진주 3·1운동과 근대 사회 발전』, 북코리아, 2020
- 조규태, 『형평운동의 선도자 백촌 강상호』, 펄북스, 2020
- 박구경, 『형평사를 그리다: 박구경 시집』, 실천문학사, 2021
- 범유진, 『두메별, 꽃과 별의 이름을 가진 아이』, 자음과모음, 2021
- 부락해방·인권연구소조선형평운동사연구회, 『조선형평운동사료집·속』, 해방출판사, 2021
- 조미은·水野直樹, 『植民地朝鮮と衡平運動-朝鮮被差別民のたたかい』, 解放出版社, 2022
- 박구경, 『진주형평운동』, 실천문학사, 2023
- 남경희, 『백정의 아들, 포와에 가다』, 봄별, 2023
- 2020인문도시진주사업단, 『형평운동과 인권의 시대』, 도서출판 사람과나무, 2023

논문

- 강정태, 「일제하의 형평사운동, 1923 ~ 1935: 급진파와 온건파의 대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981
- 고숙화, 「일제하 형평사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83
- 이명길, 「身分制解體와 衡平社運動(完)」, 『晉州商議』 21호, 1986년

- 엄찬호, 「일제하 형평운동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1989
- 조미은, 「조선형평사의 경제활동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1994
- 조미은, 「서울에서의 朝鮮衡平社 活動」, 『郷土서울』 제55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95
- 고숙화, 「일제하 형평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6
- 이혜경, 「충남지방 형평운동 연구」, 충남대학교, 2002
- 이나영, 「형평사 운동의 역사적 평가」, 동의대학교, 2004
- 김언정, 「한말·일제하 여성 백정의 경제활동과 '형평여성회」, 고려대학교, 2005
- 김재영,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의 지역적 전개」, 전남대학교, 2007
- 윤혜연, 「일제하 형평사의 형평운동에 관하여」, 경성대학교, 2007
- 이용철, 「형평사의 노선분화와 성격변화」, 충북대학교, 2011
- 강동순, 「1920년대 형평사의 민족운동과 성격: 민족협동전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13
- 홍성진, 「식민지시기 신분 문제와 교과서 서술: 형평운동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2014
- 장승순, 「1920년대 충북지역 민족운동의 양상과 성격」, 충북대학교, 2014
- 한미진,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가축 방역 활동과 백정층의 변화」, 고려대학교, 2015
- 강성진, 「시민교육을 위한 형평운동 교수학습방안」, 단국대학교, 2022
- 안후상,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연구」, 전남대학교박사논문, 2022

학술지

- 김의환, 「일제치하의 형평운동 고향사」, 『서울』, 1967
- 진덕규, 「형평사운동의 자유주의적 개혁사상에 대한 인식」, 『한국정치학회보』, 1976
- 고숙화, 「형평사에 대한 일연구: 창립 배경과 초창기(1923~25) 형평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984
- 조미은, 「서울에서의 조선형평사 활동」, 『향토서울』, 1986
- 박환규, 「일제하 형평사 연구(I)」, 『한국체육대학교논문집』, 1986
- 김중섭, 「1920년대 형평 운동의 형성 과정: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88
- 고숙화, 「일제하 형평사 연구: 1926년 이후의 형평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989
- 김중섭, 일제 침략기 형평 운동의 지도 세력: 그 성격과 변화, 동방학지, 1992
- 최시한, 「'일월'과 형평운동의 관련 맥락」, 『서강어문』, 1994
- 조휘각, 「형평사의 민권운동 연구」, 『윤리연구』, 1995
- 김명환, 「형평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오늘날의 사회적 의미」, 『최고관리자과정논문집』, 1997
- 조휘각, 「1920년대 자유 평등운동 연구: 형평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1999
- 김일수, 「일제강점기 '예천형평사 사건'과 경북 예천지역 사회운동」, 『안동사학』, 2003
- 김재영, 「1920년대 호남지방 형평사의 창립과 조직」, 『역사학연구』, 2006
- 김재영, 「1920년대 호남지방 형평사의 활동」, 『역사학연구』, 2007
- 천정환, 「근대적 대중지성의 형성과 사회주의 (1)-초기 형평운동과 「낙동강」에 나타난 근대 주

- 체」, 『상허학보』, 2008
- 정영훈, 「백정 관련 연구의 맥락에서 본 〈일월〉」, 『한국현대문학연구』, 2008
- 김중섭, 「형평사와 일본 수평사의 인권 증진 협력 활동 연구」, 『사회와 역사』, 2009
- 김재영, 「형평사와 보천교」, 『신종교연구』, 2009
- 박세경, 「1920년대 조선과 일본의 신분해방운동-형평사와 수평사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009
- 신종한, 「근대 신분제도의 변동과 일상생활의 재편-형평운동과 백정들의 일상」, 『동양학』, 2010
- 전홍우, 「일제강점기 강원지역 형평운동」, 『인문과학연구』, 2013
- 김중섭, 「한국의 백정과 일본의 피차별 부락민의 비교 연구」, 『현상과 인식』, 2014
- 윤철홍,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진주지역에서의 형평사운동에 관한 소고」, 『법과 사회』, 2015
- 이항직, 「'평등 사회를 향하여: 한국 형평사와 일본 수평사의 비교'를 읽고」, 『현상과 인식』, 2015
- 최보민, 「1925년 예천사건에 나타난 반형평운동의 함의」, 『사림』, 2016
- 김제선,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운동과 형평운동의 비교」, 『유관순연구』, 2017
- 김재영, 「일제강점기 호서지방의 형평운동」, 『충청문화연구』, 2017
- 설기환 외,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의 효시로 본 백정신분 해방운동의 복합적 요인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2018
- 이광욱, 「문제적 표상으로서의 '백정'과 역사극을 통한 재현의 낭만화-김영팔의 〈곱장칼〉과 형평운동 겹쳐 읽기」, 『한국극예술연구』, 2020
- 박구경, 「평사_{平社}·2-진주, 진주사람들2 외 1편」, 『실천문학』, 2021
- 신진균, 「형평운동의 새로운 서사를 모색하다」, 『역사교육』, 전국역사교사모임, 2020
- 강성진, 「형평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의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 기유정, 「반(反)형평사 소요와 식민지 대중 정치(1923~1930)」, 『사회와 역사』, 2022
- 김중섭, 「형평운동의 연구 동향과 자료」, 『현상과 인식』, 2022
- 김경민, 「문학에 재현된 예외적 존재, 백정」, 『어문학』, 2023
- 김일수,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의 지역성과 지역운동」, 『민족문화논총』, 2023
- 김명희, 「계속되는 형평운동과 지역 공공역사-인권박물관의 가능성」, 『사회와 역사』, 2023
- 이향아, 「국가통치성과 예외상태-백정, 도축, 그리고 형평운동에 대한 재고찰」, 『사회와 역사』, 2023
- 정근식, 「형평운동과 인권의 사회사-구체적 지역 사례연구를 지향하며」, 『사회와 역사』, 2023
- 조형열, 「형평운동과 지역사회운동-연대로 가는 험난한 여정」, 『사회와 역사』, 2023

